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35 1983년 1월 2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January 20, 1983

JAN 20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메트로·토론토 법 제정 움직임

성인 잡지 판매 규제?

실협측,「외설」규정 명시 요구

메트로·토론토시의회는 성인잡지판매 규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실시하자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의회 법제·면허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각 상점들에서 자유로이 판매되온 외설잡지에 관한 시법을 제정, 규제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모임의 의견발표자로 나온 실협고문 홍중표(Jay Hong)씨는 5분간의 연설에서 판매규제는 (1)법제화대신 상점주들의 양식에 맡겨 자율적으로하며 6개월내지 1년의 잠정기간을 두어 법제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2)법제화 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어떤 잡지가 성인·외설 규제대상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 (3)메트로 토론토의 코너상점, 컨비니언트 상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협의 1천여 회원들이 의견을 더욱 비중있게 참작해 줄 것등을 요청했었다.

아침10시부터 하오12시30분경까지 계속된 이날 모임은 지난 9월13일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이 메트로 시의회에 성인잡지판매규제에 관한 시법제정을 요청한 데 대한 공개청문회로 폴·갓프리 시의회의장, 이글튼토론토시장, 준·롤랜즈, 토니·오도노휴등 시의원과 멜래스트맨 노스욕시장등과 종교계및 여성지도자를 비롯한 15명의 의견발표자들이 참석,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구세군등 종교계대표와 준·롤랜즈 여성시의원등은 이글튼 시장의 법제화 요청을 찬성했고, 각 잡지공급업자측은 법제화를 보류하고 규제를 자발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 차선겸 실업인협회장

15명의 의견발표자들중 법제화 지지발언이 숫적으로 압도했었고 특히 상점에 나온 외설잡지를 직접 보여주며 발언한 여성대표들의 발언이 호소력이 있었다.

실업인협회측의 홍씨는 성인잡지판매방법상의 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잡지가 외설의 범주에 드는 규제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하는 것만도 금기로 돼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 모임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성인잡지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5피트이상의 높은 선반에 전시하며, 잡지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막아 놓도록 돼있었으나 외설 혹은 성인잡지의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상점주들의 혼란이 컸었다.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나 플레이·보이지는 외설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다.

◆홍중표씨

잡지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상점주들은 $25~$35의 요금을 내고 성인잡지 판매허가를 따야하며, 허가소지자는 시로부터 일정한 판매지침을 하달받게 된다.

실협집행부는 지난해 가을 일부 회원상점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설잡지 소지"혐의로 잡지를 압수당하고 입건되자 경찰간부들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했었다.

17일 이글튼시장과 만난 차회장등 간부진은 성인잡지판매로 인해 잡지공급자가 아닌 상점주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데 대해 항의했고, 어글튼 시장은 이 자리에서 18일의 시의회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발표해 줄 것을 권고, 협회고문인 홍씨가 발언하게 된것이다.

지금까지 메트로 토론토 상점들의 외설잡지 규제는 잡지공급자의 지시에 의존해왔으며 온타리오주의 해밀턴, 벌링턴에서는 이미 성인잡지규제를 법제화했으나 그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실행상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오·도노휴시의원과 멜·래스트맨 노스욕시장이 18일 시의회 법사위원회 성인잡지판매에 관한 공청회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외설잡지를 들여다 보며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중표(맥스협회 회장)씨는 실협을 대표, 설득력있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페이·TV사인 퍼스트·초이스(First Choice)사가 2월1 일부터 외설영화상영을 계획하자, 이를 반대하는 데모 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페이·TV를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라디오·TV및 통신위원회(CRTC) 몬트리얼 사무소앞에서 벌어진 데모광경. 전직 스트리퍼였던 리·트래쉬(왼쪽)모습이 보인다.

(관계기사 2면에)

"외설잡지 압수 불법"

해밀톤시 「온」주 고법서 패소

온타리오주 상고법원(Court of Appeal)은 17일 해밀톤시의 조사반이 일부 상점들에 진입 외설·성인잡지를 압수하고 상점을 수색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상고법원은 이날 해밀톤시의 음화방지세칙(Anti-Pornography by-law)의 일부규정이 "누구라도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캐나다 헌법의 인권·자유보장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지방법원은 원고인 13개 해밀톤상점측이 피고인 해밀톤시(Corporation of The City of Hamilton)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기각했었다.

13개 해밀톤시내 상점을 대표한 변호사 허먼·터크스트라씨는 음화방지세칙이 동기가 전전치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역사상 가장 교묘한 형태의 검열제도"라고 주장했다.

전대통령 사촌 전창환씨 구속

(서울-UPI)한국경찰은 전두환대통령의 사촌인 전창환씨(58)등 6명을 상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전창환씨의 구속은 지난번 대통령부인 이순자여사의 삼촌이 재정관계혐의로 체포된 이후 두번째로 대통령의 인척이 구속이 된셈이다.

—社 告—

◆편집국 이종안씨

◆광고국 이춘호씨

◆퇴사한 유승민씨

이종안·이춘호씨 입사

—유승민부장은 퇴사—

2명의 새 인물이 토론토 한국일보 사원으로 추가됐다.

이종안(37)씨는 편집국에서 유승민부장 후임으로, 이춘호(44)씨는 광고국에서 주로 외근업무를 맡기위해 17일부로 입사했다.

편집국의 이종안씨는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후 공군본부 문화공보장교로 있으면서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고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했으며, 75년부터 82년까지 온타리오주 윈저의 윈저한인연합교회 담임으로 봉직해 왔다.

광고국 이춘호씨는 성균관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후 71년 캐나다이민, 밀크·스토어, 레스토랑등을 경영했으며 최근에는 토론토 파·애비뉴·아카데미(사립학관)의 한국인관계 대표자로 있다.

한편 약2년간 편집국에서 근무해온 유승민부장은 개인사업차(세방여행사 설립) 15일부로 퇴사했다.

유부장은 불철주야 주말도 없이 취재전선에 뛰어들며 생동하는 기사를 과감히 발굴해냈고 또한 스포츠에 관한 많은 좋은 기사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 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란콤화장품 대리점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쭈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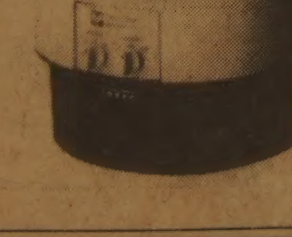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 원심식 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 ——— US$79
카나다 $105(+송금료)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 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플레이보이사와 퍼스트·초이스 계약
페이 TV 음화 방영 난관
전국 각지·단체 반발 높아

전국 페이·TV회사인 퍼스트·초이스(First Choice)사가 2월1일부터 플레이보이(Playboy)사와 제약 선정적인 외설영화를 방영하기로 계획을 세우자 이를 항의하는 데모가 18일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캐나다의 여러 주요도시에서 일어났다.

이날 토론토에서는 약300명의 여자들이 강추위를 무릅쓰고 시청앞의 나잔·필립스·스크웨이(Nathan Philips Square)광장에 모여 퍼스트·초이스사의 처사에 항의를 했다.

오타와에서는 각정당의 라디오·TV·통신위원회(CRTC)가 이계획을 재조사, 취 연방의원들이 모여 캐나다 소하지 않는다면 퍼스트·초이스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프랜시스·폭스 체신장관도 하원에서 음화는 캐나다의 TV스크린에 방영될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클락야당당수도 "나는 이를 여성에 대하 부당이용 또는 착취로 보고있으며 이와같은 행위는 우리 캐나다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에서 데모를 벌린 여성들은 퍼스트·초이스사가 외설영화를 방영하기 위해 플레이보이회사와 3천만달러의 공급계약을 맺은 것은 "여성을 격하시키고 또한 비인간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데모에서 분노의 화살은 백화점재벌 이튼회사에게로 돌아갔다. 이튼회사는 플레이보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렌·워렌회사의 모회사인 베톤방송사의 주식을 80% 소유하고 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미터법 무시한 영주권자 추방위협
토론토 주유소주인 「갤론」고집맞서

미터법을 끝내 무시하고 리터대신 갤론(Galon)으로 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주인인 영주권자 잭·헬퍼트(57)씨는 이로인해 기소될 경우 추방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민국 대변인이 18일 경고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영주권으로 캐나다에 이민온 헬퍼트씨는 이곳에서 32년간 살았지만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한 일이 없다.

그는 "나는 아직도 이나라 시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정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만약 당신이 시민을 위하는 정부를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캐나다 시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말 토론토 동쪽 퀸·스트릿·이스트에 자리잡고 있는 그의 카·카페(Car Cafe)주유소에 있는 갤론으로 계산해서 파는 휘발유펌프를 봉해버렸다. 그러나 연방경찰이 돌아간 즉시 헬퍼트씨는 봉한 것을 떼어 버리고 다시 영업을 계속했다.

갤론으로 광고하거나 갤론으로 판매한 때문에 기소되면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간의 징역형 또는 2가지형을 모두 받게 된다.

이외에 연방경찰의 봉함을 떼어버린것 때문에 5,000달러 벌금이나 2년 징역 또는 이 두가지형을 모두 받게 될 수도 있다.

헬퍼트씨는 "봉한것을 떼었다고 추방하는 나라라면 이나라의 어느지역도 원치 않는다"고 열을 올리면서 갤론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행동대」로 자칭하는 25명의 데모대들이 헬퍼트씨의 주유소앞에서 캐나다정부의 미터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렸다.

경주이씨 종친회
22일 하오7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경주이씨」들의 종친회(회장 이승영)는 오는 22일(토) 하오7시 427 Valleyview(전화 876-1702)에서 첫 월례모임을 가진다. 아직 모르고 있거나, 미가입 경주이씨들의 연락및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451-4450, 453-7748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파산율 50년내 최고
하루에 113건꼴

(오타와)불경기가 심화된 지난 1년동안 회사와 소기업 파산신고는 반세기만에 최고 기록인 하루에 11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1년도보다 3분의 1이나 증가한 숫자이다.

소비자와 법인문제부(Consumer and Corporate Department)가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41,408건의 파산이 신고되었는데 이중 기업의 파산신고는 10,765건이고 개인파산건수는 23,036건이였다.

이들 지역별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가장 높은 17,908건으로 하루 49건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종이 3,2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876건), 건설업(1,661건), 제조업(1,997건), 교통·체신·공공산업(766건), 1차산업(636건), 금융·보험·부동산(533건)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같이 파산건수가 높은 이유는 불경기의 심화로 실업율증가, 높은 이자율및 기타 경제적 악조건으로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망의 수퍼·보울
4개팀 정상에 도전

LA 레이더스의 패배는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제2라운드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파란이었다.

단축 정규시즌 9게임에서 8승1패로 단연 수위를 보였고 플레이오프 제1라운드에서 클리브랜드 브라운팀을 격파, 여유있게 2라운드에 들어섰던 LA레이더스는 「언더덕」뉴욕 젯츠에게 17대14로 몰려 수퍼보울의 꿈이 깨지고 말았다.

15, 16양일간 속개된 NFL 플레이오프 제2라운드에선 수퍼보울 진출을 꿈꾸는 4강팀은 ▲AFC=뉴욕젯츠, 마이애미돌핀스 ▲NFC=워싱턴 레드스킨, 달라스 카우보이로 결정됐다.

워싱턴 레드·스킨은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21대7로, 달라스 카우보이는 그린베이 패커스를 37대26으로 각각 물리쳤다.

NFC 컨퍼런스챔피언을 뽑는 제3라운드는 워싱턴 레드스킨구장에서 달라스 카우보이를 맞아오는 22일 상오9시30분(LA시간)에 열린다.

AFC의 경우 샌디에고 차저스를 34대13으로 꺾은 마이애미 돌핀스가 레이더스를 물리친 뉴욕젯츠를 마이애미 홈구장으로 불러 23일 상오10시(LA시간) 경기를 갖게 된다.

AFC·NFC 컨퍼런스 챔피언전에서 승리하는 양강은 오는 30일 파사데나 로즈보울에서 대망의 수퍼보울에 참가하게 된다.

▲위로—LA레이더스가 뉴욕젯츠에게 패배한후 젯츠팀의 보비·존스선수(왼쪽)가 패자 레이더스의 라일·알자도선수의 어깨를 안고 위로하고 있다. 레이더스는 이날 17대14로 패해 수퍼보울 진출의 꿈이 무산되었다. 〈LA—AP〉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52>

흔적 ③
피살된 여자는 急所를 얻어 맞아…

지휘자는 서류를 뒤적거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여자는 목을 심하게 얻어 맞았어. 급소를 얻어맞은거지.』

그는 오른손을 빳빳이 세웠다. 그리고 그것으로 후려치는 시늉을 해 보였다.

『이렇게 후려친 것같아. 정확히 급소를 노려서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더구나 상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야. 범인은 대단한 힘으로 정확히 급소를 때렸어. 상처가 그것을 말해주고있어.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높은 여자의 목을 조인것같아. 사망시간은 낮12시 전후로 밝혀졌어. 높은 전문가같아. 솜씨로 보아 아마추어는 아니야. 만일 전문가라고 볼때 이 몽타지는 믿을만한게 못되지.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수가없지.』

『왜 여자를 죽였을까요?』

그 질문에 지휘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면서 답답하다는듯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후에 입을 열었다.

『피살자를 잘 알고있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 여자는 외국에서 행실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 같아. 프랑스에간 목적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본래의 목적은 집어치우고 엉뚱한데 열을 올렸던 모양이야. 비도덕적인데 말이야. 모리무라씨가 들으면 화를 내겠지만 아뭏든 드러난 사실은 그래.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때 그녀의 죽음은 의외의 사건이 아니고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것 같아. 그녀스스로 죽음을 재촉했다고나할까.』

다음날 아침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그것은 희미하게 채취된 지문에 대한 감식 결과였는데 놀랍게도 그 지문의 주인공은 인터폴과 각국경찰의 추적을 받고있는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수사지휘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자는 X로 알려진 인물이야. 벌써 10년넘게 인터폴이 쫓고있는 국제킬러야. 인터폴이 점찍고있는 1급 살인자야. 이런 놈이 우리 수사선상에 떠오르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는 잔뜩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그럼 그자가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이란 말인가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야겠지. 가만있지.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인터폴에 연락을 해둬야겠어. 거기서는 이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테니까 이야기도 들어보게 말이야.』

그는 그 자리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도오꾜에는 인터폴 요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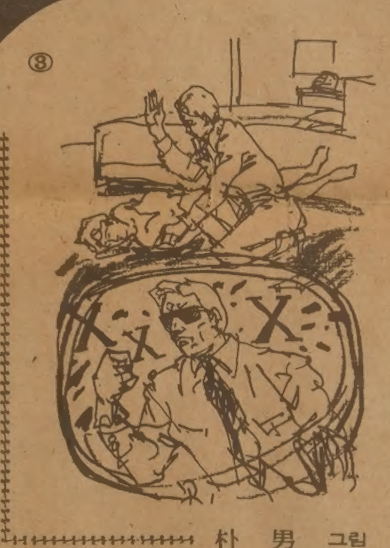
『당신들이 찾고있는 X의 지문을 우리가 하나 채취했읍니다. 그놈이 도오꾜에 나타났어요.』

『만납시다. 지금당장!』

인터폴측은 흥분하고 있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읍니다.』



朴男 그림

서울 아시아게임에 중공출전 의사있다

▲중공NOC대표로 참석한 황중. 그는 한국과 중공간의 스포츠교류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후에는 활발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86년이후 양국스포츠 교류 이뤄질것
중공에 국가대표급 한인청년들 많다

중공은 8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의사를 갖고있는것으로 보인다. LA서 열리고있는 IOC·NOC회의에 참석중인 중공대표 황중(중공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은 16일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는가』라는 본보기자 질문에 『우리는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차지한 우승위치를 포기하고 싶지않다』고 말함으로써 서울대회에 출전할 의사가 있음을 비쳤다.

이날 중공올림픽위원회 왕쟁후서기의 영어통역으로 빌트모어호텔에서 가진 황중부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같다.

—귀국은 탁구에 있어서 우수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것으로안다. 한국도 탁구실력이 높다. 만약 한국이 귀국탁구팀을 초청한다면 서울에 오겠는가.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과제이다. 우리 양국이 하루 빨리 스포츠교류가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86년 서울에서의 아시안게임이후로' 양측의 스포츠교류가 여러방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한국의 탁구팀이 북경을 가까운 장래에 방문할 수 있는가.

▲그점도 신중히 고려할 문제이다.

—우리 서로가 교류하게될 기회를 만들어 나가보자.

—귀국 길림성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포츠분야에서 그들의 활동은 어떤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인청년중에 국가대표급 실력의 소유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특히 축구등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듣고있다.

캐네디언 과반수 미사일실험 반대
갤럽여론조사

캐네디언의 과반수가 북부알바타주에서 미국이 크루스·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발표된 갤럽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캐네디언중 52%가 캐나다정부는 미국이 콜드·레이크호수에서 미사일실험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미국정부는 크루스·미사일의 유도장치가 북극권과 같은 기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실험해 보기위해 콜드·레이크호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 실험에서 재래식 또는 핵 탄두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대상자중 37%는 실험을 원했으며 11%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반대자를 연령층으로 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가 59%로 가장 많고, 50세이상이 40%로 가장 적다.

이 여론조사는 18세이상의 캐네디언 1,04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가정인터뷰 박식으로 실시되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5일(토) 2면 한인상공인협회 광고중 "3. 대외사업" 하단 ◎장소및 일시…는 중복 되었음으로 삭제합니다.

식품가 계속하락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지난 5개월간 계속 식료품가격이 하락, 가정주부들의 이맛살이 펴지고 있다.

캐나다농무성이 18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2월중 4인가족당 캐나다의 식료품 한바구니 평균가격은 $87.30로 11월에 비해 11%나 하락했다. 지난 7월에는 $90.3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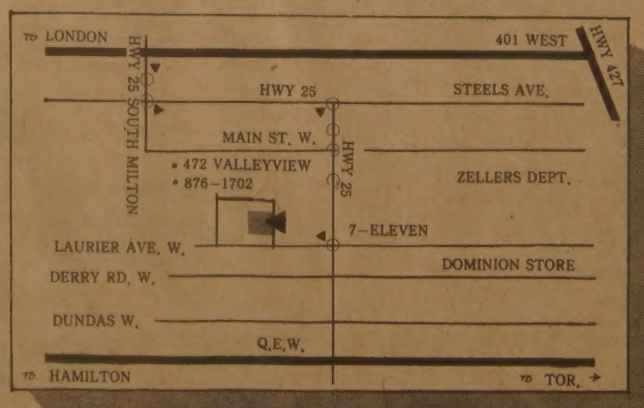
토론토의 경우는 지난달 한바구니에 $88.44로 11월의 $88.58과 7월의 $91.36보다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은 1월중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칠면조에 대한 크리스마스 특별가격이 끝나 가금류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겨울철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료품이 값비싼 외국수입품으로 바뀌고 있으며 1월1일 연방정부가 우유값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석유제품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의 대부분의 식료품가격은 1월중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림

종중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을 보내고 희망에찬 복된해 계해년을 맞이하여 일가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종친회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일취월장 상호부조하며 낯서른 이민생활에도 외로움을 잊으며 재미있게 모임을 거듭하고 있음은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조령숭앙과 일가단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삼감사드립니다.
금번 새해의 첫 월례유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일가회원으로부터 여러번 문의전갈 또는 전화연락을 받았읍니다마는 일일이 통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일괄안내 드립니다.
부디 소만합석하옵기 학수고대합니다.

◇일 시 : 1월22일(토) 오후7시
◇장 소 : 약도참조.
◇연락처 : 451—4450, 453—7748



재카나다경주이씨종친회
회장 이 승 영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10주년기념 「실협의 밤」

3월26일, 하버캐슬로 확정

1973년 30명의 상인으로 발족한 실업인협회가 창립 10 돌을 맞아 회원수 950 명의 대협회로 발전한 의의를 다함께 기념, 축하하기 위해 협회는 3월26일(토) 저녁 Harbour Castle Hotel의 Metropolitan Grand Ballroom에서 「실협의 밤」을 개최키로 확정, 준비에 착수했다.

근 2천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날 행사에는 각종 공급업자를 포함, 외국인 참석자만도 2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한인사회 사상 최대의 만찬회가 될 이 거대한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분야별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되도록 공식적 의식은 간소화하고,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주도록 하는 원칙하에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인기가수와 코메디언을 포함한 5~6명의 연예인이 출연, 각종 공급업자들로부터 들어올 3만달러 상당의 경품, 그리고 댄싱의 흥을 돋아줄 전문적인 Live Band 등으로 참석자들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프로를 구상하고 있다.

전체회원의 참여는 물론, 내외귀빈을 다수 초빙함으로써 명실 공히 실협의 발전상과 저력을 십분 과시하는 찬란한 기념행사가 되도록 회원·임원·이사 제위의 적극적 협력이 크게 기대된다.

에글톤시장과 면담

성인잡지등 당면문제 논의

지난 1월12일 협회의 차선겸 회장과 서춘경 이사장은 강공선 상담실장을 대동, Art Eggleton 토론토시장을 방문하여, 성인잡지 고발문제등 당면문제들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먼저 근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외설잡지 판매에 대한 경찰고발문제에 대하여 경찰측에서는 외설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찰관 재량으로 상점에서 판매하는 성인잡지에 대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설잡지의 소지」 죄목으로 회원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잡지가 상점까지 오기 전에 공급업자급에서 검열을 하여 소매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이글톤 시장이 지난 9월 성인잡지의 진열을 규제하는 법률제정을 시의회에 요청한데 대하여 실협측은 법률제정 이전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당국의 요구조건에 협조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연후에 입법여부를 고려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글톤 시장은 어린아이들의 손이 쉽게 닿는 관계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서 자율적 선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1월18일 상오11시, 시청에서는 각계대표들을 초빙하여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고, 이 자리에는 실업인협회를 대표하여 홍중표씨가 참석하여 협회측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세째로 Hold-up을 위시한 강도·절도·도난등 각종 범죄에 가장 취약한 업체가 바로 실협회원들인데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사건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의 상습화를 방지하도록 조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끝으로 신규사업체의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이웃의 유사업체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허가해줌으로써 기존업체를 보호하고, 「사업면허」를 남발하지 않도록 조처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하였다.

동석한 시장 특별보좌관 (Special Assistant) David Goyette씨는 앞으로 협회의 여러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언제든지 전화만 주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미 해밀톤과 뉴마켓및 벌링톤지역에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성인잡지의 진열」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주목된다.

◆이글톤 시장과 면담하는 차선겸 회장과 서춘경 이사장.

험티덤티 리베이트인상

KBA회원 20% 독점거래 23%

Humpty Dumpty 칩스회사는 새해부터 KBA회원에 한해 리베이트를 20%로 인상하여 인보이스에서 직접 할인하기로 하고, Humpty Dumpty 상품만 독점거래하는 경우에는 23%의 리베이트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금년중에 200g 칩스에 대하여 최소한 6회의 Promotion을 실시할 것과, 신규 거래회원에게는 첫 Order때에 「2개 매입에 1개 무료제공」을 하고, 그후 4주간은 「5개 매입때 1개 무료제공」을 실시한다고 협회에 전해왔다.

올·월드 시리즈 84년개최

미·일 야구의 실력총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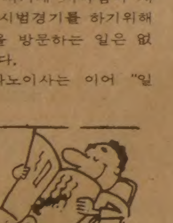
(도오꾜)북미와 일본 야구 챔피온간의 "올-월드·시리즈(All-World Series)"가 84년 늦가을에 열릴것이라고 도오꾜의 요미우리·자이안츠의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요미우리·자이안스의 국제연락이사 히라노·히로아끼씨는 7게임이 될 이 올월드·시리즈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83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과 재팬·시리즈(Japan Series)의 84년도 우승팀과의 시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히라노이사는 "이 시리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상황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메이저-리그의 코미셔너(Commissioner) 실에서 누군가가 그주일내에 도오꾜에 와 이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월드·시리즈가 실현되면 과거에 미국팀이 시즌후 시범경기를 하기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일은 없게 된다.

히라노이사는 이어 "일본팀이 7게임 올-월드·시리즈에서 월드·시리즈챔피온을 물리칠 공산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미국팀이 일본팀보다 일반적으로 체력이 우수하지만 경기기술면에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역설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K.B.A. 교환센터

◆Frozen Food Cabinet 있음
84"×30"×42" High
Asking $300.-(947-1032 Mr. 서)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품목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
(669-6438 Mrs. 염)

◆8Feet 3층 Magazine Rack 구함.
(743-2398 Mr. 유)

◆Vegetable 팔 수 있는 Cooler 구함.
(247-6965 Mr. 박)

「축구왕」 펠레

모델과 재혼

브라질 출신으로 「축구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펠레(42)가 같은 브라질 사람인 톱모델 슈샤양(19)과 열애중, 결혼예정이다.

두 사람은 2년전부터 연인이 되어 미국에 살고 있는 펠레가 브라질로 귀국할때마다 함께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때 슈샤양의 섹시한 사진이 브라질 잡지에 실려 종교심 깊은 펠레와 사이가 벌어질듯 했으나 최근 TV인터뷰에서 펠레는 "때가 오면 그녀와 결혼할 작정"이라고 밝혀, 둘이 맺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펠레는 66년, 백인 로즈마리 여인과 결혼, 세 아이를 낳았으며, 12년후인 78년에 이혼했다.

◆81년7월, 뉴욕에서 펠레가 출연한 영화를 보러 함께 나타난 펠레와 슈샤양.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謹賀新年
지난해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아침

★특수업
Oshawa Motor Court Hotel ...... 박태식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심응응·정근영
The John Lim Co.(Surekiller) ..... 임태호
Cartright Distributing Co. .... 황정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Welcome to K.B.A.

— 금주의 신입회원 —

Korea Travel Service	성낙윤	Pock's Milk	권선녀
Kennedy Florist	김웅일	Agincourt Smoke & Variety	남승원
A-J Milk & Variety	정완교	His Milk & Variety	정용성
Carlton Variety Mart	길영경	Roger's Garage	변달원
Moon's Convenience	문배락	Milk Plus	노은길
Coronet Card Shop	신명철	Pik Kwik	임금순
Continental Cafe	서동춘	Your Pantry	장광복
Jamestown Milk	장추국	Sun's Fruit Market	손덕수
Woodlawn Milk & Variety	여문석	Big M Variety & Grocery	박의흠
Agincourt Convenience	이재영		
Mak Milk	유인석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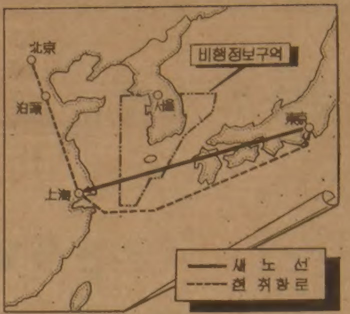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인환

東京·北京운항 日·中共機 한국 飛行情報區域 통과

빠르면 올봄부터 就航

亞太 항공會議 합의



東京과 北京간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가 금년부터 우리나라 비행情報구역(FIR)을 통과하게됐다. 이같은 사실은 14일하오 코타이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의장이 싱가포르에서발표함으로써 밝혀졌으며 외무부는 15일 이를확인했다.

코타이테의장은 지난1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고있는 ICAO 제2차아시아·太平洋지역 항공회의에 참석중인 한국 일본 中共의대표들과 접촉, 관계 當事國간에 합의가이루어졌다고말했다.

코타이테의장이 밝힌 東京-北京의 새航路는 東京과上海를 直線으로 연결,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코타이테의장은『東京-北京간 단축항로는 東京과 上海를 직선으로 연결하기때문에 한국의 FIR을 피한 현재의 우회항로보다 1백71마일이 단축되며 이항로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연간 3만 5천톤의 연료를 절약할수있다』면서『새항로의 운항은 빠르면 금년봄부터 시행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ICAO측은 東京-北京간의 短縮路線 개설을위해 지난 2년간 관계당사국인 한국 일본 中共과 개별협의를 계속해왔으며 우리정부는 코타이테의장이 지난해 1월 訪韓했을때 국제民航의 우리 領空및 FIR통과 개방입장을 밝힌바있다.

앞으로 新航路를 통과하게 될 中共民航(CAAC)이 우리나라 FIR을 통과하게 될경우 大邱管制所와 직접교신을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中共측은 북한을 자극치않기위해 일본FIR의 관제가 가능한 나가사끼(長崎縣) 후꾸에(福江)를 통한 간접交信방법을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관제소와 우리 FIR을 비행하는 여객기간의 교신방법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당사국간에 협의를거쳐 결정될것이나 中共측이 간접교신을 끝까지 주장할경우 大邱관제소-후꾸에(福江)관제소-中共民航의 3角交信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28일까지 계속될 ICAO 제2차 亞太지역항공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金哲容교통부항공국장 張萬淳외무부 조약심의관 洪正杓조약과장등 교통·외무부관계자 5명이 참석중이다.

韓·中共관계 변화 前兆

비행시간1시간단축, 연2억엔절약

해설 東京과 北京을 잇는 日·中共민간 항로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게 된것은 韓·中共간의 관계변화조짐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 관련3개국이 합의한 새항로는 東京과 上海를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항로다.

현행 東京-北京항로는 東京과 上海의 직선항로중 가로막고있는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을피해 東京에서 일본九州남쪽을거쳐 上海-페이시안-포토-北京으로東京-上海간을 크게 우회하고있으나 新항로는 東京-上海간의 비행거리를 1백71마일이나 단축시키기때문에 현재週 10여회씩 이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일본항공(JAL)이나 中共항공(CAAC)측은 연간3만5천톤의 연료를 절약할수있게된다.

이 新항로개설의 중재역을 맡은 사람은 코타이테ICAO이사회의장인데 ICAO측은 東京-北京간의 직선항로개설을 목적으로 ▲南韓상공을 통과하는 東京-서울-北京라인과▲北韓상공을 통과하는 東京-瀋陽-北京라인등 二元노선案을 제시한바 있으나 북한이 後者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ICAO측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민간항공의 발전을위해 영공및 비행정보구역의 개방원칙을 세우고있기 때문에 작년 ICAO측의 南北韓상공을 통과하는 2개 라인案을 환영했으며 이번에도 일본과 中共측의 우리비행정보구역 통과제의를 기꺼이 수락한것이다.

외무부의한관계자는『韓·日·中共3국간에 기본원칙만 합의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등 교섭할일이 泰山처럼 남아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ICAO측은 빠르면 금년봄부터 新항로의 운항이 가능할것으로 보고있다.

여하튼 中共 민간항공기가 조만간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날게 될 것은 분명해졌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우리 空域에 우리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中共의 여객기가 들어와 우리나라 地上관제탑과 교신을통해 안전비행의 편의를 받게 된다는것은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李在武기자】

輸入자유화·關稅인하 촉구

KDI "국내産業의 過保護구조 개편돼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기존산업정책을전면개편, 과감한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를 통해 과보호적 국내산업구조를 비교우위체제로 개편하라고 관계당국에 권고했다.

이를위해 ①84년1월1일부터 관세이외의 수입규제를철폐하고 모든수입규제를 관세율로 대체하며 ②85년부터 4년간에걸쳐 관세율을삭감하여 최고관세율을 30%로 인하할것 ③정부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유치산업은 엄선하여 향후5년동안만 보호하도록 유치산업보호를 제도화할것 ④주요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無稅품목을 없앨것 ⑤다만 主穀만은 수입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연구원은 또 보호정책 개편계획을 추진하기위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관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고 권고했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은 70년대 정부주도아래 추진된 수출지향적 중화공업화가 육성방법상의 잘못때문에 수출산업으로 자라지못하고 국내시장만을 상대로한 내수산업(對內지향적산업구조)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당면산업정책은 지원체제의 개편과 국제경쟁원리를 도입, 비교우위산업만 살아남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연구원은 산업구조개편을위한 정책방향으로 ▲산업보호체제의개편▲기계공업에대한 내수기반의 확충및도급거래의 확대▲기술개발체제의 확립등의 시책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개발연구원은 산업구조를 개편하려면 무엇보다도 산업보호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 ①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 ②산업부문간의 실효보호율 격차제거 ③산업구조의 예시적 점진적인 개편촉진 ④유치산업의 시한부 잠정적 보호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관세율의 인하및 균일관세제도의 시행등 정책방향까지 아울러 제시했다.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국민투자기금 産銀자금및 일반은행자금으로 구성되는 수요자금융체제를 정비강화하고▲수요시원금융체제의 정비확충▲국산제품의 품질보증제도의 확립▲국산기계류에대한 특별소비세의 폐지등을 촉구했다.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民正黨창당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뒤 다과회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있다.

民正 創黨2돌 기념식致辭

"改革意志 더욱 발전돼야"

全대통령 꾸준한 自己省察로 試鍊극복을"

民正黨 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15일『民正黨은 민주와 정의의 이념을 내실있게 가꾸고 改革의지를 발전시켜 선진조국을 창조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더욱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 江東區可樂洞 黨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 創黨2주년기념식에 참석, 致辭를 통해『지난 2년간 創黨이념으로 굳게 뭉쳐 노력한 결과 우리에게 닥쳤던 여러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치하하고『民正黨은 창당 3년째를 맞이해 바야흐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있는 조국의 進運을 더욱 힘차게 加速化시켜야할 사명을 안게되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民正黨의 창당 이념 아래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당인으로서 우리당의 창당 이념을 정부를 통해 구현하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밝히고『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먼저 改革의 발걸음을 꾸준히 계속하는데서 찾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民正黨이 밝힌 민족·민주·복지·통일의 5大理念은 바로 제5공화국이 지향해야할 목표로서 이같은 이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현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잠시나마 약화된 적은 없었는가를 솔직히 자문해 보아야하며 이러한 자세에 흐트러짐은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념이 국민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를 반성해보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民正黨은 발전에 대처, 그활동에 있어 실천을 內實化하고「국민과함께있는정당」으로서 민의의파악과 정책개발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2년간 이룩한 성장과 성숙을 바탕으로 시련과 역경을 더욱 훌륭하게 극복하는 길잡이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당직자, 소속의원, 창당발기인, 중앙위원, 지도위원등 1천5백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모범당원 78명에게 표창장도 수여됐다.

民正黨은 이날 기념식이 끝난후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6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

張吉山 다시 連載

서민들의 情恨그린 大叙事詩

社告

18일字부터 本紙 7면에

作家 黃晳暎씨 再執筆

插畵는 崔然石화백이 계속맡아

한국일보의「張吉山」이 새해를맞아 오는18일(화요일)부터 독자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지난 74년7월11일 처음 한국일보에등장한「張吉山」은 파란만장한 굽이굽이 네차례나 潛行을거듭, 독자여러분들을 안타깝고 궁금하게 만들어주었읍니다.

81년9월4일 1641회를내보내고 건강등 개인사정으로 붓을놓았던 작가 黃晳暎씨는 몇달전부터 마음을가다듬고 의욕적으로「張吉山」의 재집필에착수, 이번에는 절대 중단하지 않고「끝」자를 꼭쓰고야 말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읍니다.

내년 7월이면 연재 시작 10년을 맞는 大河역사소설「張吉山」은 우선 그분량만으로도 한국소설사에 하나의 큰 금을 그은 대작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주인공인 서민들의 情恨과저력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린 웅장한 대서사시로서 세계문학에 내놓아도 결코 손색없는 한국 현대문학의 白眉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近代史의 민중운동이 일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싯점에서 중단됐던「張吉山」은 앞으로 1년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 한국일보 7면에 연재될「張吉山」의 삽화는 종전대로 崔然石화백이 맡게됐읍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흥취점을 향해 숨가쁜 질주를 하게될「張吉山」의 모습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 7면에

◇꼭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야 말것을 다짐하고 있는 작가 黃晳暎씨(右)와 崔然石화백。

「李喆洙 제2事件」도 뒤집혔다

美加州 항소法院 1審死刑판결 無效판시

교도소서 갱頭目 살해혐의… 곧 保釋될듯

【로스앤젤레스支社=邊灣鎬기자】李喆洙씨의 옥중정당방위살인사건(제2사건)이 14일 캘리포니아州 제3항소법원(새크라멘토소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이는 지난 79년5월14일 스톡턴지방법원에서 타파스판사가 선고한 사형판결의 번복을 의미한다. 李씨의 제1사건(차이나타운사건)도 지난해 9월3일 무죄로 판결났었다.

새크라멘토 제3지부 항소법원은 지난81년부터 1심의 사형선고에 대한항소심을 2년간 연기하면서까지 李씨의 제1사건 재심을 기다려왔다.

李씨에대한 제2사건의 사형판결은 원래 제1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 내린 판결이었는데 지난해 9월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제1사건재심이 무죄판결로 확정되어 변호인단은 제2사건도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번복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항소법원의 원심파기결정에대해 李씨의 변호인인 스튜어드·헨런변호사는 보석신청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3명의 항소판사중 2대1의 판결로 원심무효판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李씨는 보석이 가능하며 현재 수감되어있는 사형수로 수감되어있는 신병도 사형수가 아닌 미결수로서 새로운 경찰유치장으로 옮겨지게될 계획이다.

李씨는 지난73년 6월7일 차이나타운살인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체포됐으며 74년 6월19일 1급살인범으로 종신징역형선고를받아 듀엘교도소에서 복역중 77년10월8일 교도소내갱단측 리드헴의 공격을받고 살기위해 정당방위살인을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억울한케이스에대해 소수민족인권차별이라는 점에서 후원회가 조직되고, 美洲사상 한국동포의 ...

臨시國會 18일召集

丁來赫국회의장은 15일 제1백15회 임시국회를 오는18일하오2시에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全斗煥대통령의 國政전반에관한 새해施政연설을 듣기위한 이번 임시국회에는 俞泰興대법원장 金相浹국무총리등 3府요인과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국회는 이에앞서 17일하오 교섭단체 ... 참석한다.

江青減刑될듯 終身징역으로

【北京AP=聯】중공사법당국은 毛澤東의 미망인江靑에게 사형선고를 종신징역으로 감형할 것이라고 정통한 중공소식통이 15일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소식통은『江靑에 대한 사형선고가 종신징역으로 감형돼 그녀가 옥중에서 생을 마칠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그럴것이다』고 답변하면서 감형은 이미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결말이 났다고 덧붙였다.

社會漫評

이럴 필요까지야 없겠지…

地平線

뉴욕 박람회가 열렸던 1938년, 최초의 타임캡슐이 전시장 부지에 묻혔다. 웨스팅하우스社가 당시의 기록과 물품들을 집어넣고 후세에 채굴될것을 기대한것이다. 공개예정은 5천년후로 잡았다. 말하자면「5천년뒤의 현대」에서 5천년전 과거인「오늘」을 비쳐보여주자는 의도가 담겼다. 까마득한 미래와 현재의 시간을 연결해 보자는 문명의 메시지다. 5천년후란 상상적 미래에서 타임캡슐을 열어 볼 광경을 그려보면 현기증이 날것같다.

▼책에 담긴 古典은 과거가 우리에게 남겨준 타임캡슐에 비유해본다. 1천년전이든 바로 10년전이든 고전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치를 지녔다. 고전의 세계를 대할때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흥분에 잠긴다. 여기서 살아있는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 時空을 넘어선 대화를 나누고 작가의 숨결을 접할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한다.「문학이란 말할수없이 깊은 것이다. 그것은 그림이며 거울이다. 정열의 표현, 날카로운 비평, 도덕적 교훈이며 바로 인생 기록이다」

▼교양의 원천은 문학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서는 문학작품에서 출발한다.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나 위인전도 이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꼽아보면(한국갤럽조사) 거의 문학부문이다. 삼국지, 테스, 성경, 대지, 죄와 벌, 흙,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부활, 여자의일생등—. 문학작품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감동을 받은 소설한권쯤 기억 못한다면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

▼새봄이 오면 신학년이 시작된다. 책도 3월에 가장 많이 팔린다는 독서의식조사도 있었다. 한해 판매량의 13.9%가 나간다. 분야별로도 역시 문학이 으뜸이다(14.8%). 문학과 독서와 관련, 다시 사르트르의 말을 들어보자.「문학의 대상은 독서를 하는동안에만 계속된다. 독서하지 않을때는 단지 종이 위의 검은 點들일뿐이다」

▼글은 물론 손으로 쓴다. 그러나 가슴으로 쓰지 않은 글은 생명이 없고 공허하다. 문학의 힘은 가슴으로 썼기에 영원하다. 문학작품은 시대배경과 작가의 생애를 이해하면 더 유익하다. 한국일보 金聖佑전駐佛특파원은 타임캡슐을 채굴하듯「세계문학전집」의 취재 순례를 해왔다. 가슴의 예술을 발로 찾아 써냈다. 언론인의 정열과 문학에의 애정이 담긴 勞作이 한권의 화려한 책이 되어 나왔다. 세계문학이 우리와 더 가까와졌다고 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기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새해도 더욱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 비데오기게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 각종비데오대여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Grant Brown

■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 질,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아침 한때

韓·日, 과연「새次元」인가

「共通의「聯帶관계」성숙돼야

閔斗基 〈서울大교수·史學〉

나까소네日本수상의 한국공식방문이 韓日관계에 새로운 次元을 열었다는 신문·방송의 보도가 요란하다. 한국과 일본처럼 古代이래 복잡한 관계를 갖고있는 나라의 사이가 수상의 한차례 공식방문으로 그리쉽게 새次元으로 전개되리라고 생각할수는 없다. 신문·방송에서도 아마 새次元이란 뜻을 정치·경제적인, 단기적인 관계의 改善이상의 뜻으로 쓰고 있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단기적제한된 관계개선을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확고한 관계개선의 시작으로 삼을수 없겠느냐 하는것은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 한두마디의 「反省」으로서는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매일수백마리의 장어를 죽이는 장어요리사들이 수백명 모여 정기적으로 장어의 위령제까지 지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본인이다. 문제는 그러한 反省이 한일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려는냐의 자세, 즉 다른말로 하면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출발각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것이어야한다.

「교과서歪曲」의교훈

교과서문제는 이런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를던져주었다. 外交的으로 일단은 해결됐다고 하나 그것이 정말로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않다. 그러나 교과서문제가 준 값진 교훈이 있었다. 그것은 日本人에게 정말 利롭고 좋은것은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利롭고 좋은 것이라는 「共通되는 聯帶關係」가 두나라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교과서문제가 벌어지자 뜻있는 日本人들이 무엇보다 걱정한것은, 日本스스로의 왜곡에 대한 깊은 우려였다. 그것은 일종의 애국심이었다.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같은것은 둘째 세째의 관심이었다.

교과서문제가 한참 시끄러웠던 작년 여름을 日本에서 보낸 나는 8월말의 어느날 본 日本公營放送 NHK·TV의 「論點」이란 프로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해설위원장이 직접나선 이 프로는 교과서문제에 대해 폭넓게 해설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의 平和公園에 새겨진 原爆희생자의 위령비 비문을 비추어 주었다.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을테니까」라고 거기에는 새겨져 있었다. 수백만의 희생으로 얻어진 이 값지고 뼈아픈 깨달음을 이제와서 헛되이 할것이냐고 물은 그 해설위원장은 「이제 保守가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는 革新과 싸울것이 아니라 反動과도 싸워야 합니다」란 말로 그 프로를 끝맺었다. 뜻있는 日本人들의 교과서파동에 대한 우려의 그우려를 형상화한 가장 선명한 例였다. 그같은 우려와 노력은 곧 전후 일본에 민주주의와 번영을 가져다준 平和憲法體制를 수호하려는 노력과 통하는 것이다.

그 平和憲法體制는 히로시마의 그 碑文이 말하는 것처럼 戰前의 과오를 시인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데서 출발한것이었다. 그것은 民主와 平和를 지향하는 日本人의 역사적 소망과 합치하였기때문에 「占領軍이 만들어준것이라는어설픈 名分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탱되었던 것이다.

동요하는 日社會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 새삼스러이 히로시마의 깨달음을 들먹여야 할만큼 日本社會는 심상치 않게 동요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日本사회자체가 하나의 분기점에 서있는듯한 느낌도 드는것이다. 여태까지의 방향을 유지할 것이나 아니면 궤도수정을 할것이냐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日本人論 日本文化論이 범람하고 있는지 모른다.

野村總合硏究所編의 「日本人論」에 보이는 戰後日本人論編年表(1945~1978)에 의하면 1961년에서 1970년까지 10년간 1백68책의 日本人論이 간행됐는데 1971년부터 78년까지의 8년간에는 무려 4백2책이 간행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연평균 16·8책인데 비해 후자는 연평균 50·3책이된다. 1978년이후에도 계속하여 日本人論들은 성행하고 있다. 그것들의 거의가 이론적구성이 어설픈 재치있는 잡담정도에 불과하나 문제는 그것들이 그렇게 쏟아져나오고 팔리고 있는데 있는것이다.

고도성장을 성취하는단계에서 그열매를 즐기는 단계로 접어들자 사회구조 가치구조등에 여러가지 변화가 급속도로 밀어닥쳐 방향감각을 마비당하거나 상실한 상태에서 日本人을 유혹하는 集魚燈의 하나가 역사교과서의 復古的歪曲이었던것이다.

그 集魚燈밑에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는 질서자체를 파괴하는 그물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안하거나 못한채 그 集魚燈주위에서 遊泳하고 있는 日本人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한 뜻있는 日本人들의 교과서문제에 보인 노력이 그 교과서파동에 대처하는 한국인들의 입장과 엇게 연대관계를 맺음으로써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준것이다. 日本이 군국주의국가화하여 남을 침략하는것만이 자기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여겼던 시기에는 두나라 사이에 갈등과 抗爭만이 있었다는것도 우리는 잘알고 있다. 日本에 진정 좋은 것은 한국에도 진정 좋은것이라는 따지고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 「진리」가 원한과 증오로 점철된 한일관계에 적용될수 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며 그것은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진정한 새차원의 지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것이다.

정치가들이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의 전개를 추진하려거던 그들이 구상하는 관계가 이 「진리」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우선 검증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이 「진리」를 좀더 확대하면 한국에 좋은 것, 즉 한국의 민주발전, 한국의 통일, 한국의 경제발전이 日本의 국익을 방해하지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相互依存的 關係의 정립에 공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기적이거나 편의적인 이익이 장기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말할것도 없이 韓日관계는 상대가 있는 관계이다. 日本측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도 대응해야 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실질적인 대등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요 하루아침에 마음먹은대로 되는것은 아니나 그 대등관계 구축을위한 노력이 알찬것이 되기위해 먼저 갖추어야할 조건이있다. 대등한 상태 日本을 참되게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日本人, 日本文化, 日本社會에대한 무지또는 오해는 구축하려는 대등관계를 歪曲시켜 참된 우호관계를 해칠수도 있는것이다.

경멸만으론 안돼

고급 지식인이라고 부를수있는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어떤사람이 한국인의 일본이해가 감정적이며 그 기반이 약다는 지적을 한것을 들은일이 있다. 日本文化는 경멸없는것이며 모방투성이라는 「경멸」이 비록 민족적 감정에서 나왔다할지라도 독립투쟁의 시기아닌 오늘의 차원에서는 그 효능이 의심스러울뿐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유해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말만 듣고 자란 젊은이가 日本文化에대한 체계적인 해석·설명없이 일단 日本文化에 접하게되는 날에는 日本文化에 송두리째 심취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의지한 섬벽(근거)이 단숨에 무너지는날 남는것은 전면항복뿐이라는 위험을 지적한것이다. 내가 놀란것은 日本文化에 대한 이같은 지적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좌중의 한사람의 반응이었다. 「아니야, 그래도 그런(경멸적) 반응은 필요해. 그것이 여태까지의 반일자세를 지탱해왔기때문이지」 실로 놀라운 반응이었다. 우리 선인들은 유교문화란는 설명기준을 갖고 그런 태도를 취하였으며 독립투사들은 투쟁의 방법으로서 그런 관념을 이용하였겠으나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공소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東아시아의 어느나라못지않게 獨自的인 文化를 구축해온 日本을 대하려한다는 말인가.

한국의 個人과 日本의 個人과의 사이에는 친한 친구도 많을것이며 국경을 넘어 사랑할수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은 비록 그같은 개인들이 집합하여 구성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들과 같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두나라에 「共通의 聯帶關係」가 성숙하기만한다면 英國과 美國과의 사이에 볼수있는 우호관계같은 정도의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볼수 있다.

그것은 백년이 걸릴지 2백년이 걸릴지 알수없는 일이긴하다. 국력에 차이가 나도 정치적독립은 엄연하고 서로한정한 과거를 가졌으나 문화전통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고, 같은 사회체제, 같은 가치를 보유하기위한 긴밀한 聯邦關係가 유지되는 그러한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탈바꿈」·「새바람」宿題로

創黨두돌…民正·民韓黨의 功過와 未來像

政治部기자 座談

週末政局

理念着根 아직도 고민 — 民正

總選겨냥「精銳化」모색 — 民韓

—집권당인 民正黨과 제2黨인 民韓黨이 15일과 17일로 각각 創黨두돌이 됩니다.

제5공화국 出帆이후 多黨制下에있어 이들 주요정당들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의 進路는 새시대 새정치의 主役들로서 많은 평가와함께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읍니다.

—먼저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등 5大理念과 改革의 기치를 높이내걸고 출발했던 민정당의 그동안의 功過와 未來像에대해 이야기해볼까요.

—民正黨의 黨務2년은 조직의 정비와 당원교육으로 일관했다고 할수있읍니다. 2년간 1백만당원중 96만여명을 교육시킨데이어 내년부터90만명에게2차교육을실시할 계획을 세우고있어요.

—당원의 사후관리에도 신경을써 里洞단위로 월1회 「평생동지모임」을 갖는가하면 당원교재용「주生同志」를 매주1회씩발간하여 시사성있는 생활정보및 黨이념확산에 노력했어요.

—말썽많았던6·28및 7·3조치는 공청회동을통해 代案을 제시,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심었고 實名制保留등은 功으로 꼽히고있읍니다.

—그동안처리한민원만도 1천9백72件이나 되지요.

—또한 公人의식실천, 새국회像정립추진, 청렴생활, 재산등록등을 통한 의식개혁에도 나름대로 선도적역할을해온게 사실이지요.

—創黨2년을 맞은 이시점에서 民正黨은 면모를 일신할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에 있었던 의원세미나에서 權翊鉉사무총장이 행정관료를 공격한후 당운영의 내실화와 자기개혁을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때 權총장은『改革의지를 갖지않고 아직도 청탁이나…』라며 목청을 높였는데 이를두고 한당직자는『여당이 건전해지지 않으면 야당이 건전해지지 않고 따라서 정치도 건전해지지 않기때문에 건전한 民正黨의 발전을 위해 외친 소리』라고 표현하더군요.

—또다른 당직자는 權총장의 발언은 아직까지도 개혁의지가 결여된 사람은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오는 3월20일을 전후해 예상되는 전당대회가 끝난뒤 있을 당기구및 당직개편후 이같은 자기개혁의지는 더욱 두드러질것 같읍니다.

—지금까지 民正黨은 變革期를 이끌어온 개혁주도의정당이었음을 부인할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民正黨이 집권당으로서 항상 개혁만 외쳐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서서히 제기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民正黨은 이제부터 개혁의지와 안정, 그리고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킨선에서 새로운 면모의 일신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뚜렷한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나봐야 民正黨의새로운 의지, 새로운 색깔이 나올것 같습니다.

—民正黨은 黨살림에 있어 대체로 月5억원이상의 자금을 쓰고있읍니다. 5억원의 내역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지구당에 매월 2백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野黨의 살림살이와는 비교가 되지않아요.

—야당이 소속의원의 歲費에서 공제하는 당비와 국고보조로 간신히 지탱하는데비해 民正黨은 후원회를 통한 수입이 主宗을 이루고있는것도 특정이지요.

—8층짜리 民正黨중앙당사 구내를 매일 빽빽이 메우는 승용차의 행렬등을 보고 있노라면 民正黨의 위력을알수있을것 같아요.

—民正黨은 창당초부터 黨優位論을 내세우며 黨政협조체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立案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등 과거 어느 집권정당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정부에 행사하고 있어요.

—물론 民正黨이 정책정당임을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만 정책수립과정에서 국가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듯하다가 일순간에 이를 바꾸는등「눈치」를 보아야 하는 약점도 없지않은것 같아요.

—民正黨의 고민은 野黨이 항상 내세우는 外形的인것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근본적이고 이념적인것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그것은 창당을 하면서내세웠던 창당理想이 얼마나국민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한는것을 뜻하는것이지요.

—民正黨당직자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해왔으며 이와함께 창당이상도 상당히 着根되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소속의원들은 아직도 民正黨의 이상이 着根을 하지못하고 있다고평가하고있어요.

—이들은 당직자들의 着根 자신표명에대해『당을 이끄는 당직자들은 黨의 이상이 뿌리를 내리고있다고 말할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동정하는 눈치입니다.

—이들중 특히 지역구의원들은 民正黨이 자랑하는 창당의 이상이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票로 나타날것인가에 대해고민을하고있읍니다.

—너무 비대해지고 정치를 獨占하고 있는 民正黨이란비판도 고민중의 하나가 분명해요.

—黨이 비대하다는것은 黨의기구가 커진다는것을 뜻하며 따라서 民正黨은 정당의 생리를 망각하고 관료화될가능성이 많지요.

—정당조직의 관료화는 바로 黨內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民正黨 일부에서는 한때 살아날듯한 黨內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黨과 몇명의 당직자에 의해 이끌려간다는 비판들을하는당원들도있읍니다.

—아직도 「윗눈치」를보아야하는 집권여당의 종래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民正黨, 이것이 바로 고민이지요.

—民韓黨은 지난2년동안 새시대의 야당의모습을 갖추느라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요.

—과거와같은 無政策 무작정한 黑白논리, 權限투쟁, 부질없는 집안싸움등은 상당히 止揚했다고 볼수있지요.

—그러나 얼마만큼 야당다운 비판야당, 受權야당, 연구하는 정책정당의 구실을했느냐에는 自省과함께 숙제로 남아있읍니다.

—제1야당인 民韓黨은 83을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해」로 설정해 놓고 있읍니다. 지난 2년을 자체정비와 對與탐색과 定立기간으로 잡았다면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議政활동으로 執政능력을 배양하는 「受權채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인듯 싶습니다.

—동시에 民韓黨은 강력한 對與투쟁을 위해서는 「黨의 단합」이 필요하고 受權을위해서는 「野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命題를 가지고 오는 전당대회를 치르는한편 다가올 정국의 변화에 대처할 자세입니다.

—民韓黨은 民正黨의 당원교육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겉으로는 정당의 균형적 발전이란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대적인 위축감때문이지요. 그러면서도 民正黨이 「被動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해 民韓黨은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요즈음 民韓黨이 지난2년을 『결코 적극적이 아니었다』며 스스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있는것은 남은 2년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있어요.

—柳致松 총재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그동안 참아왔으며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민주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제적 배분에 배치되는 어떠한 정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이라고 民韓黨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지요.

—따라서 民韓黨은 창당이래 제1의 과제였던 在野인사들의 문제를비롯 各級선거법, 地自制, 국회법등 정치議案에대해 波狀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民韓黨은 전당대회가 끝나는대로 대표적인 黨職개편을 통한 「體制의 쇄신」과함께 전면적인 조직의 補修를 위한 사전정밀 진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정밀진단은 멀리는85년 總選을 겨냥하면서 가까이는 새로이 迎入될 인사들의 예우를 고려하면서 「黨勢의 精銳化」쪽으로 추진할계획이더군요.

—民韓黨은 최근 在野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고민이늘어나고있는듯한인상입니다.

—무엇보다 고민의 近因은 정국 「開花의기운」과함께일을 「在野의바람」을의식하지 않을수없는데있는듯합니다. 아직 風向의강도를 예측할수는 없지만 그 바람이 民韓黨쪽으로 기울것은 확실한상태며 이경우 맞 바람을 일으킬 耐久性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이와함께 民韓黨이 안고 있는 구성원의 異質性에서도 고민의 遠因을 찾을수 있지 않겠읍니까. 전환기에 이사람 저 사람 몰려들기는 했지만 체질적인 批判세력과 체질적인 적응세력이 共存해왔던것은 사실이지요. 때문에 고민으로부터 탈피할수 있는 제1의길은 이러한현상을 우선 조화시키는데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있어요.

—民韓黨의전당대회는 예측이 어렵긴하나 柳致松총재가 單一化속에 재추대되리란는게대체적인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구당개편대회에서 나타난대로 民韓黨이안고있는 內在된 갈등을 극복하지않는한 자칫 표류의 신세는 면키 어려울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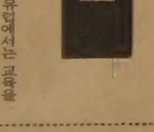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창당 콤프렉스를 탈피하고 당내 異質的요인을 同質化시키는데 힘을 쏟아야할듯 합니다. 특히 少壯의원들과 일선당원들이 끈질기게 제기하고있는 지도부의 이른바 「安住의 자세로부터 탈피하라」는 소리를 결코 간과해서는안될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자세의 정립없이 제기능의 발휘를기대할수는없읍니다. 在野와맞서든 在野를 흡수하든民韓黨은자기중심을가져야합니다. 民韓黨의 자기자세정립은 자신의 實像을 들여 볼때 정립될수있으며 民韓黨의 제기능회복은 정치발전과 함께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리라믿습니다.

【整理=李成俊·李以善기자】

메아리

萬年學生



金聖佑 〈編輯委員〉

교육문제가 한참 관심거리가된김에 다시 한번 교육을 생각해보자.

갤럽여론조사연구소로 유명한 조지·갤럽씨가 연구한 결과는 우리에게 참고가된다. 좀 오래된 조사이기는하지만 교훈으로서의 가치는 낡지않았다.

갤럽씨는 미국과 유럽의 고등교육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봤다. 미국에서는 학부모의 70%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을 시키고싶어 한다. 이나라에서는 대학교육이 출세를위한조건이다.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지위면에서 대학교육은 상당히 중요시된다. 미국의부모들은 자녀의 학문적 소질을 전혀 생각하지않고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대학의 문이 좁은것을 원치않고 가기자식이 행여 대학교육의 혜택을 못입을까봐 걱정한다.

이에 비해 유럽의 학생들은 많은수가 고등학교정도에서 正規의 학교교육을 끝마친다. 대학교육이 인생의 성공에 불가결이라는 생각이 없다. 유럽에서는 뛰어난 성적을가진 학생이나 들어가는 것이 대학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다. 장래의 계획을 세우고있는 젊은이들은 낮은학력으로 만족한다.

같은 레벨의 학생들이 학교수업이나 가정학습에 들이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유럽 학생들이 미국학생보다 교육에 훨씬시간을 더쓴다. 유럽학생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노트를 쓰며 지식분야에서 유럽학생의 일반수준은 미국학생 보다 높다.

오늘날의 고등교육이 의도하는목적을 지도적 교육자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에게 중요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일정한 기술을개발시키고, 한 시민으로서의 인간을 만들고, 충분한 知的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기위한것으로 집약되었다. 미국의 교육제도가 이 네가지 목표달성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었는가를 알기위해 조사한 결과 高卒者의 6명중 1명만이 프로이트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大卒者의 3명중 2명은 쇼펜하워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고 大卒者중 미국인구를 정확히 아는것은 반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교육에대한 차이중 가장 근본적인것은 自己敎育이다. 미국에서는 교육이라고하면 곧 正規敎育 즉 학교교육과 同一視한다.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물으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年數를대답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교육을 학교교육만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 유럽사람들에게는 自己敎育이 더중요하다. 이들의 많은수가 학교교육을 마친뒤에도 책을읽고 연구를 한다.

어떤 미국인은 『위대한 미국의꿈은 萬人의 교육이다. 커다란 미국의 비극은 교육이 학교교육과 혼동되어 있는것이다』라고 말한적이있다. 미국에서는 自己敎育의 分野가 무시되어있다.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으면 그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결과 그이후는 더 이상의 知的成長을 목표로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태도가 용케도 미국과 닮았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학교의 正規敎育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데에 큰문제가 있다. 모든 副作用이 여기서 생긴다. 각 분야에서 知識과 기술이 급속히 증대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학교 문을 나온뒤의 自己敎育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민주국가의 양식있는 시민이 되자면 또한 自己敎育밖에 방법이 없다. 존·듀이는 그의 「敎育論」에서 『교육의 목적은 각자가 自己敎育을 계속할수 있도록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自己敎育을 위한 훈련장이다. 自己敎育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몇년만 지나면 시대에 뒤떨어지게되는 학교교육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그 지적한 교육열을 학교 교육에만 쏟을것이 아니라 自己敎育에도 配分해야 한다. 자식을 학교에 넣는 교육열만 올리지 말고 대학에 진학 안한 자식을 스스로 배우게하고 나아가 이미 학교를나온 자신을 가르치는데도 교육열을 고조시켜야 할것이다. 대학4년으로 모든 교육이 끝난다는 생각, 대학은 교육의 끝이요 종점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학교 교육자체가 정상화할수 있다.

안톤·체호프의 연극「벚꽃동산」은 제1막에서 女地主인 안드레예프나가 대학생인 트로피모프에게 『당신이 아직 학생이요?』하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트로피모프의 대답이『나는 萬年學生이고 싶소』다. 우리는 모두 萬年學生이 되어야 한다.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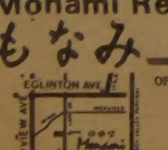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Monami Restaurant

もなみ



OPEN Mon~Fri. 11:30~2:30
5:00~10:00
Sat. 5:00~10:00
Sunday & Holiday Closed

114 LAIRD DR. Toronto
PHONE: 421-6016

◎각종 스시및 일본식 요리
아늑한 일본식 「다다미방」이
점심시간에도 이용하실수 있게
준비되어 있읍니다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오 뎅 백 반	$2.95
칼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통 만 두	$2.95
곰 탕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 만 두 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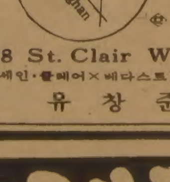
658½ BLOOR ST. W.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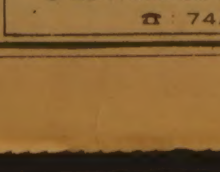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특집판

話題 소설「張吉山」작가가 쓴 지난줄거리

張吉山

黃晳暎 作

한국일보 讀者들 앞에

18일부터 다시 나타난다

아침마다 소설 읽는 재미를 주던 大河역사소설「張吉山」이 18일(화요일)부터 한국일보에 다시 연재된다。애독자들의 오랜친구「張吉山」이 엮어내는 파란만장한 드라마는 언제 어디서부터 읽어도 항상 흥미진진하기 짝이없다。「張吉山」은 제4부「미륵」의 중간부터 얘기를 엮어 갈 예정인데 그동안「張吉山」을 잊어버린 애독자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전 줄거리를 소개한다。【편집자註】

1部 쫓기던 女婢의 아들…路上에서 태어나
2部 廣大패·力士·俠客들 義氣로무리지어
3部 九月山장악 官衙·富豪털어 活貧행각
4部 流民·승려세력규합 監營점령 노리며

第一部 廣大

張吉山은 신분의 해체가 서서히 시작되어가던 肅宗말에 도망하는 女婢에게서 태어난다。예성강의 벽란나루에서 追奴하는 관원을 피했던 女婢는 文化재인말을 본거지로하는 해서 광대들의 도움을받아 강을건너지만 끝내 아기를 낳고는 죽는다。그 아기를 받아낸것은 문화광대 손돌네 행중의 딸재주꾼인 장충이었고, 어미로부터 해주수양산 망해사의 보경선사에게 찾아가 그 아비 步를찾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그러나 장충은 아기의 친부를 찾지못한채 구월산 큰 무당인 아내 안씨와 더불어 아기이름을 吉山이라 짓고 광대로서 기른다。길산이 도망노비의 몸을통해 광대에 기탁되는 것은 유민계층이 천민세력의 핵심이 되어가는 시대를 알리는 박명과도 같은 상징을 지닌것이다。

광대 계층은 僧도 아니오 俗도 아니며, 호적에서도 누락되어 있고, 부역도 피한 流民 중의 가장 수상한 자들이라고 위정자들은 기록하고 있다。이미 왜란과 호란 뒤의 변혁기에 농토를 잃은 빈농층의 상인으로의 전환과 천민계급 간의 결속은 차츰 보편적으로 진행되었다。그들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감히 관에서 기찰할 수도 없다고 사료에서는 지적하고 있다。광대, 무당, 중, 유민, 상인의 성격을 이리저리 갖춘 이들사회 부동층을 종래의 신분개념으로파악할 수는 없다。

여하튼 吉山은 같은 광대로 力士인 李甲松과 함께 송화 무더리 장터에서 해주 奸商輩 신복동 패를 혼내주고 송도 상인 차인 行首 朴大勤과 사귀게 된다。한편 흉년에 색상에 팔려 娼妓가 되었던 妙玉은 재인말 총대 손돌 노인에게 건져져서 그와 부녀 비슷한 사이로 재인말에 살게된다。

박대근과 길산이네 행중은 상단과 연희패의 계약으로서 상부상조한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어 문화장날에 동행하게 된다。역시 도망 노비로서 봉산 자비령의 화적당 임태를에게서 분가해 나온 馬甘同과 吳萬石이 구월산 산채의 두령 노가를 동지고 길산 박대근 이갑송과 정을 나누게 된다。상인들과 재인들의 큰 잔치인 해주 관시 놀이에서 송상들과 만나기로 하였던 구월산 문화 광대들은 출행 계획이라 하여 대굿을 벌인다。그날밤에 길산과 묘옥은 당나무 아래에서 정분을 맺게되고, 다시 총대 노인의 집에 가서 출행 나가기 전날밤에 혼인을 기약하며 길산이 묘옥의 가슴에 朱雀이라 하여 먹물을 새겨 넣는다。길산은 장충과 안무당이 양부모이고 그가 길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일을 알게된다。

해주 상인 신복동은 선상 일당의 모략에 의하여 패망 시키고 그 충실한 도사공이었던 禹大用은 살인죄를 쓰고 투옥된다。길산과 만나기로 하였던 박대근은 송화에서 당한 신복동이네 패거리의 복수를 받게되었고, 길산과 갑송이가 그를 구출하고 박대근과 달아나다가 길산이만 관군에 잡히게 된다。해주 감영 옥의 회자수 망나니로 전락하여 잔명을 붙이고 있던 우대용과 장길산은 박대근의 도움으로 탈옥할 날만 기다린다。묘옥은 정인이 대시수로 처형당할 날짜만 기다리게 되었음을 듣고는 남장을 꾸미고 해주로 나갔다가 그의 처형 소식을 듣게된다。사실은 박대근이 뇌물을 써서 다른 죄수와 바꾸었음을 알지못한 묘옥은 스스로 고달근이의 안성 사당패에 기탁하여 해서를 떠난다。우대용과 장길산은 박대근이 고용한 송도의 假御使 李先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한다。

이제 재인말은 관군의 지목을 받게 되고 장길산과 이갑송은 더 이상 광대로 날을 수는 없게되어 마갈동과 오만석이 두령으로 있는 구월산 녹림당에 들어가게 된다。재인말 광대들은 월청사 조실 雲悅스님과 원주 송玉如의 도움으로 탑고개 괴뢰배의 마을에 정착한다。월청사 아래에는 거사패들이 있었으니, 일찌기 미륵의 도래를 믿는 풍엘은 인근에 천민들을거두어 주고 승려 세력들을 모으고 있었다。길산이 탈옥하여 구월산에 당도하자 장충은 안무당이 어려서부터 친딸로 길러온 봉순이와 길산을 맺어주려 하였고, 묘옥은 벌써 종적이 간데 없었다。길산은 그의 생명을 받아 이만큼 길러준 양부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누이나 다름없는 봉순이를 아내로 맞는다。갑송이도 월청사 사당인 도화와 성혼하는데, 이 기회를 빌어 뜻 맞는 벗들이 형제의 의를맺는다。송상 박대근, 봉산의 선비 김기, 장길산, 이갑송, 해주 도사공 우대용, 구월산의 화적 두령인 마갈동과 오만석 그리고 장연의 소금장수 姜善興 등이었다。

길산은 백성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던 감옥에서의 깨달음을 실천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바가 없어 괴로와 한다。풍엘의 소개로 그는 금강산에 은거하여 전국의 승려와 천민 세력을 모으고 있는 雲浮大師를 찾아 떠난다。노상에서 그는 姜末得과 괄준이 남매를 알게되고 高城 鎭村의 力士 鄭澗이와 동행한다。광대는 다시 무법자에서 뚜렷한 의식을가진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이 혁명에 대한 뜻은 운부의 가르침에 의하여 종교적인 정신과 동화된다。

第二部 群盜

安城 사당패로 흘러간 묘옥은 모가비 高達根의 권유로 여주 陶匠 李敬順을 알게되고, 경순은 묘옥을칼이사랑한다。이경순이 비록 양인에 지나지않으나 돈 많은 공장이로서 여주에서는 세력있는 사람이었다。그는 심심풀이로 총포도 만들고 발포술에도 능한 사람이었는데, 슬하에 아들이없어서 늘 적적해 하던것이다。사당패가 출행을 나가게되니 사당인 묘옥이 몸을 팔게될까 안달이난 이경순은 고달근이네 행중을 좇아서 당진까지 나간다。당진 船商 유가네 아들이 사당패를 모욕하자 이경순은 잠적간 묘옥을 구해내느라고 살인을하게되어 쫓빨이 흩어져 달아나고, 고달근과 황회 복만이 등의 안성패 동자진패 진관사패 등들이 내친김에 화적으로 변하여 유가의집을 털게된다。이경순은 범법 살인자로서 묘옥과도 헤어져서 여주를 탈출하는데 아내는 와중에 죽고 패가한다。

묘옥은 광주 송파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주막을 차린다。황회 고달근 복만이는 천마산 술부리에 자리잡고 난전이나 화적질 장물 매매를 하면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거기서 미륵을 믿는 정원태와 합류한다。

금강산에 들어간 길산은 운부의 지도를 받으며 산에다 화전 개간도 하고, 정좌 정신 혁제 崔聖卿 薛有盛과 더불어 역병이 일어난 마을 사람들을 구호하며 새로운 뜻을 배운다。길산은 차츰 백성의 나라가 어떤것인가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된다。

강선흥은 고향 장연에서 아직까지는 선량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다。해서는 원래가 부역이 심한 고장이었는데, 선흥은 장산곶으로 벌채부역을 나갔다가 內需司의 서리와 다투게 되어 집을 떠난다。그는 멸산노릇을 하는 천봉이네 형제와같이 백운산 화적을 인솔하여 달마산의 수동이네 패를 물리친 다음에 불타산의 천불사를 차지한 심백과 법호를 좇아낸다。그리고 강선흥은 해서 서쪽의 한 판도를 장악하는 화적 두령이되고 말았다。

해주 감영 옥에서 길산과 함께 탈옥하였던 우대용이도 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강화 선단의 도사공이 되어 京江 출입을 하였다。우대용은 조선창 朴性大 石鼠哲과 알게되고 마포 동막의 건달 洪千壽와 거래가 생기고、江主人들의 부정 거래 수단인 和水와 투식이라는 사기에 걸려든다。서강의 잡물와주 毛信은 우대용의 사람됨을 보아 그에게 뒤를 맡터이니 水賊船을 지으라고 권한다。강화 선단에서 쫓겨난 우대용을 중심으로、조선창 박선대 뱃사람 서번칠 마포 무뢰배 홍천수 등은 마포 동막에서의 부정거래로 관에 쫓기게 되자 아예 바다로 나가 삼선과 세곡선을 터는 수적의 당을 이루기로 하였다。그들은 우선 배와 화포를 장만하기 위하여 달마산으로 강선흥을 찾아가 재령 부호를 털 의논을 한다。재령 궁방전을 관리하는 執綱을 터는데 강선흥과 우대용 식구는 합력하여 龍船과 火砲를 장만할 대금을 확보한다。

금강산에서 삼년 수도를 마친 길산은 생부의 종적을찾아 묘향산으로 가다가 중도에서 깨우쳐 운봉산에 들어가 다시 수도를 계속한다。남린산에서 그의 인간성과 정신은 더욱 성숙되고 깊어진다。잠채를 하는 광부들을 구해내고 그중에서 金先一이 그를 따른다。

구월산에 돌아온 길산은 선비 김기를 완전히 천민을 택한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구월산 산채를 나누어 자비령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다。먼저 달마산에서 관군에게 쫓긴 강선흥이가 구월산으로 들어왔고, 燕京에 가는 使行船을 습격한 우대용의 수적들은 근거지를 봉점에서 평안도쪽으로 옮긴다。

송도의 박대근은 四大商의 임방좌장인 裵大人의 뒤를 이어 좌장이 된다。그는 송상이 일어서려면 무역품 가운데 가장 귀한 인삼이 재배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그는 우연히 자기를 찾아온 전라도 유민 모녀에게서 인삼이 재배될 수 있음을 듣는다。그는 최유력과 처자를 성혼 시키고 그들에게 인삼의 모종을 넘겨준 당부한다。송상이 크려면 조선의 잡은 문화로는 어림도없고 청와 무역의 다리를 놓아야 할텐데 가장 유리한 품목은 역시 인삼이었다。박대근으로서는 이제 송상이 다른 단계로 들어섰다는것을느꼈다。

第三部 潛行

자비령에는 춘천 태생의 崔興福이가 두령 노릇을 하였는데 그는 원래가 춘천 楡谷의 농사꾼이었다。일찌기 관의 혹심한 장세에 저항하여 녹림에 들어왔고, 그는 唐椒輛이라는 별호대로 영악하고 유능하게 산채를 끌어왔다。자비령에 산채를 두려는 장길산 일당들은 그를 제거하거나 한 편에 넣지 않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김기의 계략으로 최흥복은 산채를 빼앗기고 길산의 수하로 들어온다。구월산에는 마갈동과 오만석이 남고, 길산은 모사 김기와 강선흥 최흥복 강말득 김선일 등과 더불어 자비령 산채를 열었다。그해 봄부터 기근이 휘몰기 시작하여 팔도가 굶주리게 되었으니 숙종 십년부터 비롯된 삼년간의 대 기근이다。

길산은 활빈행에 나설 것을 휘하 빈당에게 알리고 해서의 곳곳에 출몰하여 관창을 털어 기민을 먹이고 부호를 습격하여 유민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구월산의 마갈동이도 그에 보조를 맞추어 신천 어루리벌의 부자집을 털었고, 이어서 평안도에까지원정을 간다。드디어 구월산 활빈도의 명 장길산의 이름이 백성들 간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감사 李世白은 감영 장교 김식을 비롯한 포도 기찰을 파견한다。그들은 송화 무더리의 사근다리에서 마갈동과 부딪치고 水回川의 決을 진다。마갈동은 김식을 벤다。

광주 삼천나루의 앞소패로 파부인 서사촌 누이와 함께 살던 石山眞은 판관이 후취감으로 누이를 보쌈해다가 겁간하려한 그를 죽이는 바람에 도피한다。그즈음 퍼지기 시작하던 한양 주변의 백성들의 결사였던 劍契는 정원태를 비롯하여 황회 고달근이며 각 저자의 난전꾼들을 모신 걸은 장돌꾼와 그리고 이경순까지 들게 되는데 삭지니도 그들과 한 패가된다。검계는 한양 성내 노비들의 殺主契와 결탁하여 도성의 곳곳에서 부호를 습격하고 궁궐을 들이칠 준비를 한다。

장길산이 강선흥 최흥복 김선일등과 자비령으로 산채를 옮긴 뒤 구월산에는 마갈동과 오만석을 비롯한 탑고개 식구들만 남게된다。때가 삼 년여에 걸친 긴 흉년이라 장길산 등은 자비령 구월산의 활빈도와 우대용의 수적 일당까지 합세하여 황해도 稅穀의 집산지인 助邑浦倉과 유司果의 집을 털어 기민을 구휼한다。

이제까지의 활빈은 사가의 재물을 털거나 시골 관아의 미곡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활동이었으나 국가에 바치는 세곡이 대량으로 탈취된것과 활빈행이 공공연히 소문나자 조정에서는 국본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관찰사 이세백이 장길산을 잡지 못하고 유반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도승지 申暻이 황해도 관찰사의 직을 특수 받는다。

그는 조정 대신들간에 형법에 가혹하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강직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신엽은 살주계와 검계의 난리 때에 포청에서 가장 민첩한 무관으로 알려진 최형기를 토포장으로 쓰기로 하고 불러 들인다。과연 최형기는 용의주도하게 토포를 진행시킨다。먼저 호탐이 사냥을 핑계로 감영 정병을 편성, 조련시키고 기찰대를 보내 구월산 일대를 정탐한다。송도의 박대근 쪽에서도 감영 군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알아오나 최형기는 군사 집결지가 서흥이라고 소문내고 자비령의 장길산 부대는 서흥을 들이친다。관군은 자취도 없고 길산이 식구들은 관군이 헛소문을 내었으리라 알고는 방심한다。관군은 선진과 후진으로 나누어 선진은 구월산의 間者들과 동조자를 잡아내고 탑고개와 사선골을 점령하고, 후진은 그대로 산채 뒤목이골을 급습한다。

탑고개 살던 구월산 일당들의 가족들과 김기의 처와 노모, 길산의 양부 장충들이 죽고、많은 광대들이 마지막 저항중에 죽는다。오만석이 총도에맞아 죽고 갓신히 토포군의 포위망을 뚫었던 마갈동은 매복했던 최형기와 일전을 겨루고 죽는다。그러나 정작 목표로 하였던 장길산을 잡지 못했으니 토포는 실패한 셈이었다。

第四部 逆謀

구월산 일대가 처참하게 토륙된 다음에 雲浮를 중심으로한 승려 세력들은 한양 입경에 퍼지기 시작한 검계 및 미륵도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고, 금화 천불산 冬安居를 계기로 풍엘스님은 구월산 월청사에서 오진암 법회를 갖는다。이 모임에는 한양 인근의 검계에 관여하던 이경순등과 양주에서 이미 미륵도를 포교하기 시작한 여환 자비령의 장길산, 일찌기 운부의 문하로 들어갔던 예전의 이갑송 大聖法主, 해서의 알려진 박수 화랭이 吳季孫 등등이었다。법회에서는 미륵신도들과 검계 살주계의 잔여 세력들이 한양을 도모하고, 관서 관북의 승려 세력과 유민 세력들이 연계하여 각 감영을 점령할 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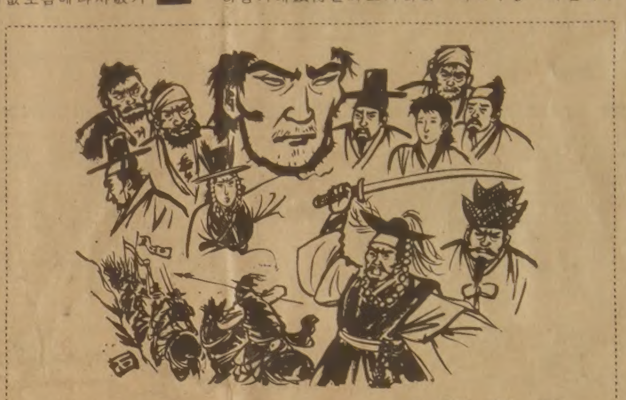
구월산의 큰 무당이며 탑고개 환난 때에 남편 장충을 사별했던 길산의 양모 안무당은 그의 수하 무녀 救化를 통하여 처녀 무당 元香을 맞는다。원향은 사선골에서 구사일생하였으나 미처 잊었고, 어릴적 사미승 시절부터 오라비처럼 따르던 呂還스님의 도움으로 제 정신을 찾는다。그리고는 구월산의 만신 안무당으로부터 큰무당의 직임을 물려 받는다。모든 일을 끝낸 안무당은 길산을 옆에 두고 임종하고 길산은 양모를 양부의곁에 묻는다。

길산은 여환을 통하여 파주 문산포에서 올라와 오진암 법회에 참석하였던 이경순이 묘옥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이경순은 길산과 대면하여 착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만다。여환은 양주로 돌아가며 그의 도반승려 玉如에게 장차 원향을 데리고 갈 뜻을 비춘다。

오계손은 해서에서 천민의 부류를 묶어나가고 이어서 자비령 장길산의 활빈도와 관서의 승려들, 강원도 운부의 승려들과 힘을합하여 때를 기다리다가, 한양에서 여환의 미륵당과 정원태 황회의검계 세력이 궁궐을 들이치면 함께 일어나 遷都之路를 끊을약조를한다。

또한 길산은 묘향산 보현사 윤필암에서 왔다는 道眼스님으로부터 그의 생부가 命根이라는 스님이되어 묘향산 安心寺의 주승이 되어있다는 소식을 알게된다。

이경순은 파주 문산포에서 주막을 중심으로 여환의 미륵도를 포교하는 일에 조력하기로 하였고, 묘옥은 이제 길산이 살아있을뿐만 아니라 성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인생을 지어가고 있음도 알게되었던 것이다。



그림·崔然石

파란만장의 義賊 一代記… 하루 하루가 大團圓으로가는 숨가쁜 緊張·迫眞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9譜 205~272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秀英〈1勝〉

黑(7段) 河燦錫〈1敗〉

黑、2집반 憤敗

白대마가 △표로 사는대신 일단 잡았던 좌중앙 黑대마가 5까지로 白을 잡고 살아가는데서 격전을 끝낸 양기사는 큰짐이라도 벗듯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놀라운것은 판이 온통 들먹이는 일대변화를 일으키고서도 대세는 막상막하, 지극히 미세하게된일이다。국후검토때『겁나는 사람들이다』며 모두들 혀를 내두른것도 알만하다。

＊그런데 실은 黑이 절호의 결정타를 던질 기회가 있었다는 중론이다。즉 좌중앙 수상전에 앞서 黑「간」로 白「나」와 교환을 해두었어야 우변에서 白6、8을 당하지 않는마큼 黑의 승리가 굳었을 것이란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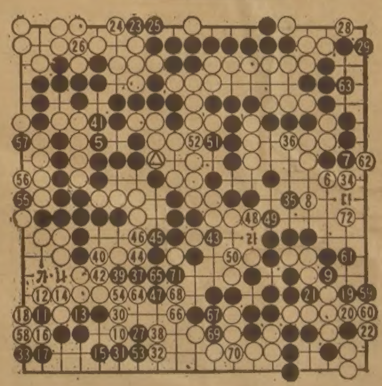
이바둑을 黑이 2집반 진때문에 생긴 결과론이긴 하나 그것이 부조전 밀어질만큼 아슬아슬한 승부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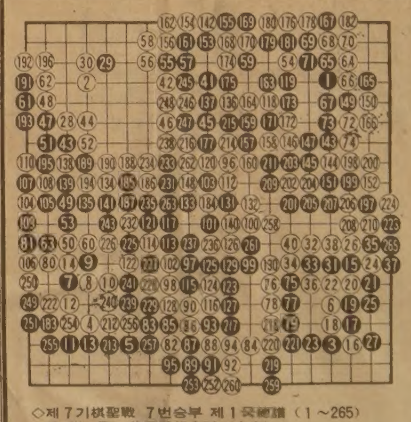
총보에서의 끝내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黑9와 白10은 이른바 맞보기며 白10에 붙인 黑27이 좋은수였다。白30으로는 좌하귀를 33자리에 젖히는것이 유리하지만 黑이 응해주지않을 공산이 커서 결국 黑33을 허락했다。

白34가 컸다。黑이「다」로 뛰어 건너가는 것에비하여 6집상관의 끝내기다。

黑35가 또호착。그러나 黑47은「라」의곳이 크지않느냐는 의견들인데 白72에 이르러 黑은 아무리해도 2집반차를 좁힐 도리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하는 총보로 미룬다。【一凡】





◇제7기棋聖戰 7번승부 제1국總譜 (1~265)
黑 棋聖 藤澤秀行9단 (1승)
白 도전자 趙治勳名人 (1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39→24, 114→104, 230→114, 242→227, 244→225, 264→189)

趙治勳 棋聖戰1局서 분패

日 藤澤에 2백65수만에 4집半져

【東京15日=宋孝彬특파원】 13·14일 이틀동안 東京부근 닛꼬에서 열린 제7기 棋聖戰도전7번기 제1국에서 도전자 趙治勳名人(26)은 후지사와(藤澤秀行·58) 棋聖에게 2백65수만에 4집반을 졌다。

趙名人의 執白으로 열린 이 대국에서 후지사와9단은 초반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으며 趙名人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1분남기고 초읽기에 몰리면서 선전했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제2국은 26·27일 나가사끼에서 열린다。

◇2백11일간의 宇宙 최장비행

蘇聯의 유인우주선 살류트7호를 타고 장장 2백11일간이라는 최장기 우주비행기록을 세운후 10일 무사히 귀환한 두蘇聯우주인의 모습。이 사진은 우주비행을 떠나기직전에 찍은것이다。【모스크바11日UPI특약=聯合】

海外토픽

로보트爆發物 제거

★괴한이 매장한것 事故막아

플로리다주 디어필드비치의 한 슈퍼마키트에서 최근 원격조정되는 로보트가 한괴한에 의해 매장안에 설치된 폭발물을 찾아낸후 쇼핑용손수레에 싣고 옥외주차장으로 운반, 폭발물무러미를 풀고뇌관을 제거했다고。

경찰에따르면 이에앞서 한 괴한이 이 슈퍼마키트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슈퍼마키트매장안과 같은 체인이 다른 29개 슈퍼마키트에 폭발물을 장치했다고 협박, 돈을 요구했는데 로보트는 괴한이 경고한 폭발시한70분앞서 폭발물을 제거했다는것。

이번사건으로 슈퍼마키트 밖으로 대피했던 손님들은 아무 피해가 없었으며 다른 슈퍼마키트들에서도 폭발사고는 없었다。【디어필드 비치(美플로리다州)=AP】

인력거 運行못하게

★濠경찰 公路上서 딱지붙여

호주경찰은 싱가포르에서처음으로 도입해 첫 운행을 시작한 인력거를 공로상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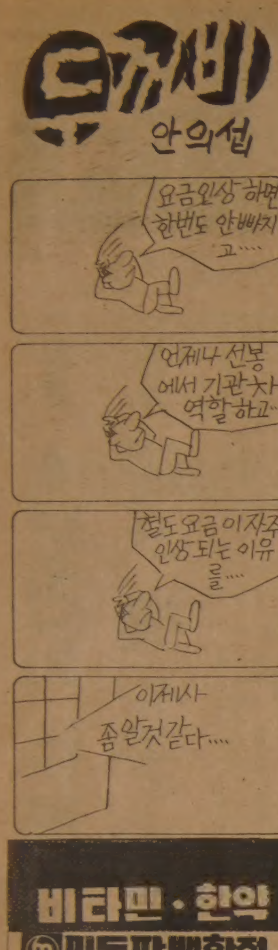
호주경찰은 2주전부터 호주서부 퍼드시의 음식점과 나이트클럽간 운행을 시작한 4대의 인력거중 1대에 딱지를 붙여 공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인력거 운행주는 인력거에 수동브레이크를 다는등으로 인력거의 운행재허가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것。【퍼드(호주)=AP】

교 회 안 내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621-6340
키치너워터루교회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519)579-0954
런던제일교회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519)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10: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298-1876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기도 밤 9:00	662 Pape Ave, Tor,	266-4918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694-9691, 266-8820(R)
해밀턴연합교회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중앙한인연합교회	김태규	주일오후 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922-0605
한인교회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1:30	69 William St, Weston	243-9543, 743-8082(R)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446-1211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深夜 아파트 가스爆發

벽돌날아… 1명죽고 20명負傷

清凉里「미주」801號 빈집서

도시가스 代替공사중 가스 漏出된듯

千여주민 待避소동 住宅20채도 破損

14일 밤10시45분께 서울東大門區淸凉里1洞235의1 미주아파트6동801호(주인李英淑·50·여)에서 LP가스가 폭발, 801호와 802호(주인 尹冠燮·45)내부벽과 문짝이 날아갔고 내부가 불탔으며 아파트뒤쪽 주택20여채가 폭음과 진동으로 유리창이 깨지는등 크게 부서졌다.

또 폭발순간 아파트에서 날아간 4발의 벽돌이 50m쯤 떨어진 淸凉里1洞234의54 金永喆씨(62·경비원)의 집 안방지붕을 뚫고들어가 TV를 보고있던 2녀 敬蘭양(21·淸凉里경찰서 수사계고용원)의 머리위에떨어져 그자리에서 숨지게하고 옆에 함께있던 金씨의 부인 金貞淑씨(56)에게는 중상을 입혔으며 이사고로 802호 주인 尹씨의 부인金貴子씨(43)등 20여명이 파편등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사고의 진동은 淸凉里일대를 뒤흔들어 반경2백m까지 유리조각, 벽돌조각등이 날아들었고 인근1백여m내의 건물 유리창등도 거의 깨졌으며 아파트주민 1천여명이 잠자리에서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불이나자 고가사다리차 2대등 20여대의 소방차가出動, 진화작업을 폈으나 정전이되는 바람에 진화가 늦어져 50여분만에야 불길이 잡혔다.

경찰추산 재산피해는 약5천만원。

사고가난 아파트는 33평형으로 지난해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1.3m높이에 설치돼있는 계량기의 높이를 1.6m로 높이라는 개수작업지시를받고 지난해 11월20일부터 고려연료(株)(대표 郭詰奎·39)에서 공사를시작, 오는 2월20일까지 그간써오던 LP가스를 도시가스로바꾸기위해 작업중이었다.

화인수사에나선 경찰은 고려연료직원으로 당시 공사를했던 朴來權씨(30) 朴日用씨(27)등을 불러 사고원인을 캐고있는데 작업원인 朴씨는 경찰에서 지난12일 801호에 공사를하면서 문이 잠겨있어 창문을 열고 손을넣어 옥내가스차단밸브를 잠근뒤 공사를 했다는점을 종시,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않고 공사를 했다가 여기서 새어나온 가스가 밀폐된 집안에 꽉차 전기누전등으로 인한 스파크로 불이난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사고가난 아파트는 28평, 33평, 56평형등 6개형이 있는 복도형 맨션아파트로 지난78년9월 준공, 1천89세대가 살고있다.

職員봉급 6천만원 착복

新化건설 常務구속·社長수배

【光州】光州경찰서는 15일 건설회사를 설립, 직원들의 급료를 착복하고 허위주주들을 만들어 이익배당금을 가로챈 新化건설 경제담당상무 李達進씨(40·光州市西區內防洞836의18)를 업무상횡령및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장 김규회씨(44·光州市東區鷄林洞492)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날벼락 現場 한밤에 날벼락을 맞은 아파트뒤쪽 金永喆씨집 안방。아파트 북도난간이었던 벽돌더미(화살표)는 천장을뚫고 날아들어 안방에서 TV를보던 金양과 어머니 金씨를 덮쳤다。

遊興업소 강력 團束

청소년犯罪 뿌리뽑힐때까지

경찰은 통금이 해제되고 학생들의 교복및 두발이 자율화됐던 지난1년동안 성범죄등 각종 청소년범죄가 급증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갖가지 유해환경업소에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판단,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41만2천2백72건의 범죄가발생, 이중 청소년 범죄가 18%(7만2천6백25건)를 차지했는데 청소년범죄는 전년도에비해 27.9%가 늘어나 예년평균 청소년범죄증가율 7.2%의 4배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는것。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강력사건은 지난해 6천7백35건중 57%인 3천8백29건이 단순한동기나 일시적인 욕구충족을위한 청소년의 범행으로 나타나 유해지역출입의 강력한통제와함께 학교및 가정에서의 철저한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경은 15일 올해를「청소년 자율질서 정착의 해」로 정하고 탈선 비행청소년과 이들을 유혹해온 업소등을 뿌리뽑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대책에따르면 경찰은 전경찰력을 동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일반 유흥음식점 ▲당구장 ▲전자오락실 ▲슬러트머신장 ▲극장 ▲음란만화가게 ▲사창가등에대해 기습적이고 지속적인단속을 실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주는 구속을원칙으로 수사하는한편 업소에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

또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및 학교인계등을 원칙으로하되 ▲학원내 폭력서클 ▲집단편싸움 ▲조직폭력배등은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뿌리뽑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오는24일까지 10일간을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전역의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대해 경찰국장의 공한문을발송, 협조를 요망하고 25일부터는 무기한 단속을펼 계획이다。

嶺南大 새總長에 柳駿이사장 선임

嶺南大學校는 15일 재단이사회를열고 趙敬熙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제5대총장에 柳駿현재단이사장(65)을선임,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妻男이 妹夫살해

【釜山】14일밤 9시께 부산시北區三樂洞70의15 박근준씨(45)집 안방에서 한집에 사는 박씨의처남 서종수씨(36)가 흉기로 박씨를찔러 숨지게하고달아났다。【釜】

淑大生 3명에도

서울형사지법 鄭克秀판사는 15일 전숙대생 3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金利納(21·중문과3년) 朴正順(22·영문과4년)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을, 朴彩英피고인(21·도서관학과4년)에겐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反政府유인물 뿌린 延大生3명에 實刑

서울형사지법 沈明洙판사는 15일 교내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연대생 河勝彰피고인(22·사회학과)등 3명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河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 1년을, 朴順貞피고인(22·여·철학과)에게는 징역10월을, 金銀珠피고인(22·여·천문기상학과)에게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高位層 친척등 免許청탁 拘束

大邱市警, 회사간부 5명도

【大邱】대구시경은 15일 고위층의 친척을 앞세워 주택관리용역 사업면허를 받아낸 건설업자 李圭達씨(42·大邱市西區內唐洞5區804·동일기업 대표이사) 가야산업전무 金泳俊씨(45·大邱市西區飛山洞1247의1) 가야산업회장 金昌煥씨(58·大邱市西區聖堂洞58)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상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건설업자인 李圭達씨는 金씨등과짜고 지난해 3월4일 아무런 정을 모르는 대통령의 친척인 全씨를 주식회사 가야산업(大邱市東區新川洞·대구상의7층)의 회장에 취임토록한뒤 全씨를 앞세워 자본주를 영입하고 대구시건설당국에 공동주택관리 용역사업면허를 청탁해 면허를따냈으며 같은해 7월22일 자본금 1억원중 공로주로 배정된 51%중 全씨에게 13.5%를주고 李씨와 金씨등 3명이 각각12.5%씩 나누어 가졌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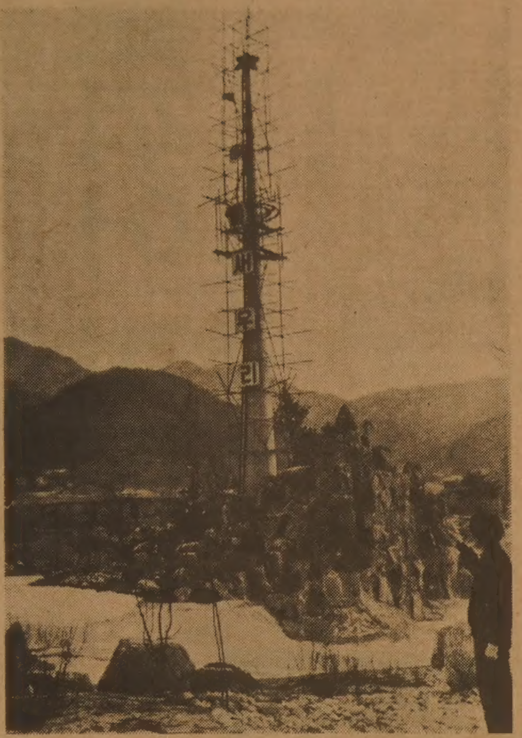
이들은 또 회사설립당시인 지난해3월4일 자본금으로 불입한 1억원을 3월6일 변태인출 함으로써 회사자본금납입을가장했다는것이다。

경찰은 지난12일부터 은밀히 수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李씨등 6명을 구속했는데 주식회사 가야산업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사업면허를 취득한후 호텔등 공공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해왔다。【邱】

창경원 動物가족 9월 「果川왕국」 大移動

「野性의 삶」 누리게 된다

"公害·철책 없는 자연放飼"



◇물새우리엔 샤워도… 서울대공원에 세워지고있는 물새우리。샤워시설을 갖춘 30m높이의 골조 왼쪽 위로 까치 한마리가 벌써부터 집을 짓고 들어와 살고있다。

창경원 동물가족이 果川에 건설되는 서울대공원의「동물왕국」으로 이사갈 꿈에들떠있다。

창경원동물들은 개원이래 73년동안 한우리에 갇혀 도시발전과함께 갖은 수난을당해왔다. 각종우리를 확장할때마다 집을 옮겼으며 공해와 자동차 소음에 시달려왔다。

서울의 도시발전과함께 어린이들의 벗이돼왔던 이들동물들이 오는9월이면 시멘트바닥과 철책우리속의 숨막히는 영어의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것이다。

철책도 없는 자연방사식으로 수용되는 果川의 동물「호화저택」에는 현재 창경원에서 살고있는 1백30종, 8백여마리의 동물이 모두 옮겨갈 뿐아니라 캥거루 코뿔소 돌고래등 국내에 없는 새로운 동물가족들도 수입, 동물의 수와 종류는 지금보다 10배가량 늘어나, 야생에 가까운 동물왕국을 이루게된다。

이에따라 현재의 창경원동물들을 어떻게 果川까지 모셔가느냐 하는 문제가 창경원과 서울大공원의 즐거운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大공원측은 이동식 철제우리를 만들어 동물을 이 우리속으로 유인해 넣은후 재빨리 문을닫고 크레인으로 들어내 트레일러에 싣고 도심을 피해 외곽도로를 따라 무장경관의 호송을 받으며 果川까지 간다는 이사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 성깔과 습성이 제가끔이어서 동물을우리에 유인하려면 동물에따라 개별적인 전략을 만들어야한다。

맹수류는 의심이 많아 미리 이동용 우리를 사육장안에 들여놓고 먹이로 꾀며 오랜 시일을 기다려야한다。

먹이를 처음에는 우리입구에 모아두었다가 점차로 안쪽으로 옮겨놓아 맹수를 우리깊숙히 유인해놓고, 이때다 싶을때 재빨리 철문을내려야한다。 우리에 가두기 까지만도 3~4일이 걸린다。 실패가 거듭되면 맹수를 우리안으로 꾀어들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코끼리를 이동식 우리안으로 유인하는데는 무려1개월이 걸린다는것。

의심이 많아 긴 코만 내밀어 먹이를 낼름낼름 집어먹을뿐, 우리안으로 좀처럼 발을 들여놓지 않기때문이다。

또 심보가 약하고 흥분하기 잘하는 초식동물들은 이동식 우리에 재 배설물을 미리 칠해놓아야 제구석인줄알고 안심하고 접근한다는 것。

하마나 물개는 이동중 피부가 건조해지지않도록 살갖에 와셀린을 발라주거나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창경원에서 果川까지는 40분거리로 피부보호를 위한 조치까지는 필요없을것으로 사육사들은 보고있다。

이처럼 고생스럽게 果川행이사를 마치고나면 동물들은 시멘트가 아니라 흙냄새가나는 넓은우리, 공해없는 신선한 공기속에서 野生에 가까운 새로운 생활을 누릴수있게된다。

코뿔소·돌고래·캥거루등 수입

數도 지금의 10배정도 늘어나

서울대공원이 동물들을 철책없는 자연방사식으로 수용한다지만 동물들은 물론 자신의 성깔과 습성에 따른 대접을 받게된다。

호랑이、사자는 그들의 넓이뛰기、높이뛰기의 능력의 최상치에다가 도움닫기를 해서 땅을 차고 점프했을 경우까지를 고려해서 깊이5m 넓이 7.5m의 도랑안에 갇히게된다。

그러나 넓이뛰기실력이 10m가 넘는 표범은 도랑을 파줄수가없어 계속 철책우리속에 갇혀지내야한다。 또 너구리、오소리、삵괭이、여우、늑대등도 역시 우리신세를 면할수없게 된다。 물새들도 도리없이 망에갇히게되지만 큰물새집의 넓이와 높이는 현재 창경원보다 2.8배나 커서 새들은 날개를 다치지 않고도 마음껏 돌아다닐수 있다。 큰물새집안에는 대형폭포、알을 깔수있는 보금자리등이 마련되어있어 새들은 고향호수를 그리워하지 않고도 아늑하게 살아 갈수있을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大공원은 동물들을세계동물의 서식분포에따라 계통별로 벌려놓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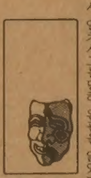
이 계획에 따라 같은 아프리카출신인 사자와 얼룩말은 도랑을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게된다。 사자는 얼룩말을 보고 침을 흘리고, 얼룩말은 무서워하겠지만 그사이의 도랑은 어느쪽도 넘을수없게되어있다。

창경원 근처를 지나는 고가차도의 클랙슨소리에 놀라 머리로 철책을 들이 받으며 괴로와하던 동물들에게 果川의 서울大공원은 신선한 野生의 삶을 살아갈수 있는 새보금자리로, 왕성한 번식과 生育을 보여줄 것으로 사육사들은 기대하고있다。【徐章淑기자】

다시태어난 家長

障碍者 운전면허1호 朱基南씨

27년의 劣等感 한팔로 거뜬히…



한손으로만 해냈다。 왼팔이 없는 신체장애자 朱基南씨(48·사진·서울 鍾路區內需洞120)는 얼마전 실시된 장애자운전면허시험에서 국내1호로 장애자면허를 따냈다。 불구의 고통이란 성한 사람들이 짐작도 할수 없는 것。

오른팔로만 차를몰아 주행시험코스를 돌아나온 朱씨는「부러진 나래를 다시찾아 하늘을 나는 새의 기쁨」에 파안대소하면서도 눈시울이 젖고 있었다。

그는 27년전 천변시절에 고향에서 열차사고를당해 왼팔을 잃었다。

그후 7가족의 생업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가장으로 장성했으나 朱씨는 때때로 치미는 열등의식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지난해연말 장애자에게도 운전면허취득의문이 열렸다는소식은 그의 두귀를 번쩍띄게 했다。

성한사람들만의 독점으로 되어있는 운전면허증을 따내 장애의 한평생을 극복해내야겠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날로 몇군데 자동차운전학원을 찾았으나 入門에서부터 장벽은 가로막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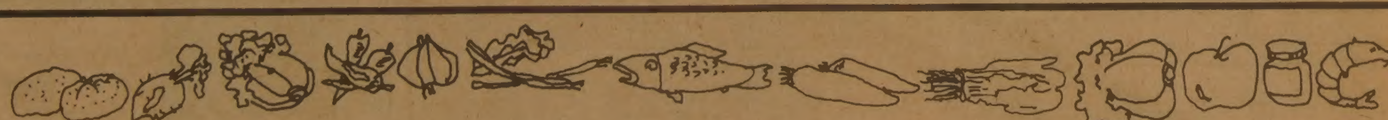
장애자를위해 제작된 차도 없을뿐더러 운전연습중 사고를 낼 위험이 많다고 꺼려하는것이었다。

그러나 단념할수 없는 그는 아침 일찍 친구의 차를 빌어타고 한강변 고수부지에가 혼자 운전을 익혔다。

때로는 하루를 한손으로만 핸들을 붙잡고 진땀을 흘렸으나 다리까지 고장난 다른 장애자들보다는 여건이 좋은 편이었다。 장애자운전면허시험이라고해서 합격판정 기준이 일반면허시험보다도 헐렁한것은 아닙니다。 단지 장애자용 특수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고, 장애자의 운동능력을 사전에 검사하는 과정이 다를뿐이다。

한 손만으로도 정상인과 같은 운동능력을 보일수 있음을 20여년만에「공식적」으로 판정받은 그는 특수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오른손만으로 운전해냈다。 합격후 포니차를 구입한 朱씨는 휴일이면 자신이 한손으로만 운전하는 차안에 가족을 태우고 교외로 다니며 당당하게 다시 태어난 가장의 모습을 과시해 볼 생각이다。【朴珍烈기자】

개업 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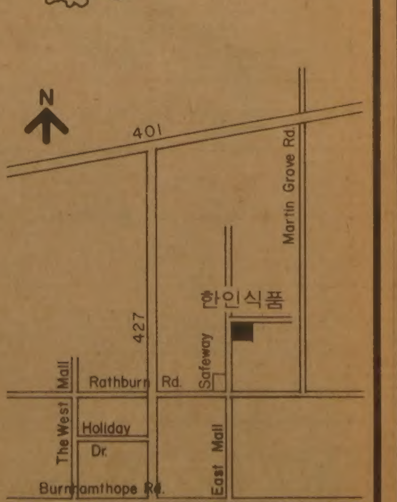


다양한 품목
정상의 품질
저렴한 가격
최대의 봉사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尹吉重·申得花 頂上에 우뚝

탁구 종합選手權 개인戰 우승

윤길중 4년만의 快擧… 朴昌益 3·0완파

신득화 대표 梁英子·白良美 차례로 꺾고

尹吉重(삼호)과 申得花(부산코카콜라)가 82년 탁구를 결산하는 제36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 남녀단식 패권을 차지, 챔피언이 되었다.

남자부의 尹吉重은 77·78년 連覇이후 부진을 벗어나 4년만에 이룬 쾌거이며, 申得花는 탁구생활 10년만에 처음 맛보는 감격이다.

15일 문화체육관에서 폐막된 대회 최종일 남자단식결승전에서 尹吉重은 세이크핸드로 원형 라켓을 좌우로 휘두르며 맹렬한 기습반격을펴 朴昌益(대우증권)을 22-20、21-13、21-11로 완파했다.

朴昌益은 준결승서 국가대표주전 金琉澤(제일합섬)을 3-1로 격파, 기세를올렸으나 결승에서는 尹吉重의 노련한 게임운영에 속수무책으로 물러났다.

여자단식 결승서는 펜홀더드라이브 공격수 申得花가 서울여상 동기생인 세이크핸드 수비수 白良美(동아건설)를 일방적으로 공격, 21-7、21-11、21-8로 가볍게 제압했다.

申得花는 이날 준결승에서 가장 어려운 적수인 고교생 국가대표 주전 梁英子(이일여고)와 대전, 첫세트를 17-21로 빼앗겼으나 제2세트부터 과감한 공격으로 밀어붙여 21-18、21-14、21-17로 3-1의 역전승리를거두었다.

이번대회 남녀단식 준준결승진출자 8명은 협회서 추천한 4~5명의 선수와함께 오는25·26일 東京세계선수권대회(4월) 출전자격을가리는 풀리그의 최종 평가전에 참가하게된다.

◇최종일전적

▲남자단식결승

尹吉重(삼호) 3 (21-11 21-13 22-20) 0 朴昌益(대우)

▲여자단식결승

申得花(코카콜라) 3 (21-8 21-11 21-7) 0 白良美(동아건설)

▲남자단식준결승

朴昌益(대우) 3-1 金琉澤(제일합섬)

尹吉重(삼호) 3-0 劉成漢(삼호)

▲여자단식준결승

白良美(동아건설) 3-0 白順愛(대한항공)

남자단식 尹吉重

高2때 國家代表… 상대 힘·技꺾는 戰法

『탁구선수로서 나자신 많은 핸디캡을 안고있다. 그러나 나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3번째챔피언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는다』

1m61、55kg。尹吉重은 큰 키없이 자신을 채찍질 해가며 상대의 힘과 기를 꺾는 전법을 터득해왔다.

77、78년 연달아 국내종합선수권을 제패했던 그는 79년6월 육군에 입대、제대로 훈련을 하지못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82년3월 제대와함께 신생三湖의 주장으로 참가、새로운 탁구인생의 불꽃을 당겼다.

국민학교때 태권도와 체조로 작은 몸을단련、春川鳳儀中2학년때 탁구를 시작、鳳儀高2년때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대표로 활약했다. 그는 세이크핸드가드로 국내 탁구계에서 백드라이브로 상대를공략、지금의 성과를 거두었다.

<프 로 필>

여자단식 申得花

刻苦 10년만의 영광… 스매싱 逸品

여자탁구 새 챔피언의별명은 「무허가건물」。얼굴에 돋아난 여드름때문에 고 동창들이 붙여주었다.

몇마디 물음에도 고개를 수그리고 수줍음을 타지만 야무지게 생긴 申得花의 얼굴에서 그간 갈고닦은 우승의 긍지를 읽을수있다。63년9월6일 釜山생。

『탁구라켓을 잡은지 10년만에 처음 차지한 우승입니다。국가대표로 뛰어보는게 꿈입니다』

釜山 범일국민학교4학년때 특별활동으로 탁구를 시작、서울계성국민학교、계성여중、문영여중、서울여상을 거쳐 釜山코카콜라에 입단、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준우승 또는 3위로 이름을 날리면서도 정작개인단식우승은 이번이처음이다。펜홀더형으로 포핸드 드라이브와 스매싱이 매섭다。리시브와커트수비가다소 불안하고 1·7㎜의 얇은 러버를 사용、볼의 위력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158㎝、48kg의 왜소한 체격。

延大、韓銀꺾어 파란

농구종합選手權

終了5분 猛反擊 88·78

全美愛·朴良桂 콤비속공의 韓化도 1승

延世大가 韓國銀行을제압, 첫날부터 종합농구 선수권대회는 파란이 일고 있다.

15일 장충체육관서 개막된 제37회 전국남녀 종합농구 선수권대회 남자부리그에서 延世大는 경기종료 5분여를 남기고 맹렬한 투지를 발휘, 체력이 지친 韓國銀行을80-78로 꺾고 첫 개가를올렸다.

여자부A조에서는 韓國化纖이 장신金美姬의 골밑활약과 全美愛·朴良桂의콤비속공을살려서울信託銀行을79-73으로꺾고 1승을 올렸다.

B조서 太平洋化學은 약체 信用保證基金을81-56으로간단히꺾고 1승을 기록했다.

이번대회는 여자부 12개팀 남자부 6개팀이 참가, 남자부는 풀리그로, 여자부는 4개조로나뉘어 예선리그를 가진다음 각조상위2개팀이 결승토너먼트에 진출, 패권을가린다.

작년 시즌 한명의 선수도 스카우트 하지못했고 센터尹振九가빠진 韓國銀行은 崔龍默·吳東根의슛으로 게임을우세하게 끌어갔으나 체력에서 뒤져 후반에 역전패했다.

센터가 없는 延世大는 리바운드서 열세 였으나 후반 5분을 남기고 俞載學·金賢俊·鄭德和등이 맹활약, 스피드가 떨어진 韓國銀行에 71-70으로 역전리드를 잡은후 기동력으로 몰아붙여 88-78로 역전승했다.

◇첫날전적

▲여자A조

한국화장품 79 (38-46 41-27) 73 서울신탁

▲동B조

태평양화학 81 (41-28 40-28) 56 보증기금

▲남자부리그

연세대학 88 (52-41 36-37) 78 한국은행

漢陽大 2連覇

大學미식축구

투지의 高大 20·7 격파

【釜山=金仁奎기자】漢陽大가 전국대학 아메리칸풋볼 동계선수권대회서 우승, 2連覇했다.

15일 釜山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결승전서 漢陽大는 주전들의 고른 기량과 다양한 작전으로 투지의 高麗大를 20-7로 격파하고 대학최강을 확인했다.

3·4위전서는 海洋大가 4쿼터까지 延世大와 0-0 무승부를 기록하고 연장전서 또다시 8-8 타이를 이룬뒤 2차 연장전서 諸海元이 터치다운에 성공, 14-8로 신승했다.

漢陽大는 이날 1쿼터10분께 HB 金鍾琨이 高麗大 수비진을 뚫는 과감한 중앙돌파로 터치다운, 6-0으로리드를 잡았다. 반격에나선 高麗大는 2쿼터 종료2분을남기고 QB 崔潤源의 전방패스를 RE 鄭泰元이 받아 漢陽大 엔드존 17야드까지 전진, TB 鄭相鐵의 오른쪽측면돌파로 터치다운, 6점을 얻어 동점을 만들고 추가공격을 성공시켜 전반서 7-6으로 리드를 잡았다.

漢陽大의 저력은 3쿼터에 나타났다.

롱패스와 측면돌파, 중앙돌파등 다양한작전을 구사한 漢陽大는 상대진영을 압박, 3쿼터 4분께 이날의수훈선수 金基駿이 오른쪽측면돌파로 독주끝에터치다운하며 단숨에 8점을추가, 역전 리드를 잡았다.

막강한 라인플레이를 앞세운 漢陽大는 3쿼터종료 1분을 남기고 金基駿이 터치다운, 6점을 보태 승세를굳혔다。

◇최종일전적

▲결승전

한양대 20 (0-0 14-0 0-7 6-0) 7 고려대

▲3·4위전

해양대 14 (6-0 8연-8연 0-0) 8 연세대

▲공격선수상=金基駿(한양대HB) ▲수비선수상=金榮澈(고려대·세이프티) ▲감투상=崔得洙(해양대LG) ▲지도상=李鍾輝(한양대코치) ▲공로상=李鎬燮(협회경기이사)

大會新 4개

學生빙상선수권

14일 春川 孔之川에서 벌어진 19회중·고·대학생빙상선수권대회와 17회대학선수권대회 첫날경기는 대회신4개의 저조한 성적을내고 끝났다.

이날 고등부의 호프인 裵基兌(서울고)는 4분46초16으로 대회신기록을냈으며 남고1천m서 대회신이 3개추가됐다。

◇첫날전적(대회신)

▲남고 3천m=①배기태(서울고) 4분46초16(종전4분48초97)

▲남고 1천m=①이준호(서울체고) 1분28초15②이규철(서울고) 1분30초04③황익환(의정부) 1분31초30(종전1분31초40)

한국일보
- 533·2361

바람잔 陸上聯에 또 內紛

"돈은 대고 人事權은 없고" 張회장 전격辭退

病주고 藥주고、推戴후 「오른팔」 자른것 禍根

조명탑

張貫龍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이 15일 사퇴, 한국육상은 또다시 곤경에 빠졌다.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3개를 따내 육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던 회장은 82년도 정기대의원총회서 대의원들이 회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집행부를 구성하자 『이런 풍토하에서는 더 이상 회장을 할 수가 없다』고 사퇴했다.

張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張회장은 80년9월 취임, 2년4개월간 육상연맹을 이끌어 왔었다.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6억여원의 금년도 예산을 확정한후 집행부구성을위한 5인전형위원을 선출, 5인 전형위원들은 張회장을 유임시켰으나 구집행부 임원가운데 3명만 유임시키고 徐潤福부회장등을 퇴진시켰다.

대의원들이 임의로 집행부를 구성하자 張회장은 환멸을 느끼고 총회장을 뛰쳐나갔고 끝내 사퇴했다。체육계주변서는 대의원들이 회장의 뜻을 저버리고 집행부를 구성한것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말하고 오늘의 육상중흥을 개탄했다。

이번 파동은 육상계 내부의 헤게모니 쟁탈을 둘러싸고 빚어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파벌 싸움으로 바람잘날이 없었던 육상은 한때 잠잠했으나 이번에 또 불씨가 살아난 셈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해 일치단결 해야할 이때에 육상계가 다시 동요하는것은 커다란 불행이다。

한편 5인 전형위원들이 구성한 집행부 임원 가운데 金鍾錫、金昌根 부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를했다고 본인 의사를 밝히고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閔炳宏기자】

◇"83년을 축구재건의 해로" 축구협회대의원총회모습。16명의 대의원들은 83년을 「축구재건의해」로 정하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光州·仁川市廳 1승

실업 여자핸드볼

14일 奬忠체육관에서 개막된 83년 전국실업여자핸드볼대회겸 일본파견선수선발전 첫날경기서 光州市廳은 全州市廳을 20-19로 물리치고 1승을 기록했다.

仁川市廳、光州市廳、造幣公社、全州市廳등 4팀의 풀리그로 벌어지는 대회첫경기서 光州市廳은 FP 金美淑(8점)과 朴英子(7점)의 맹활약으로 20-19, 1점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尹秉順·金玉花·尹英淑등 대표급선수들을 보유한 仁川市廳도 造幣公社에 30-26으로 역전승, 1승을 올렸다.

◇첫날전적

광주시청 20 (8-9 12-10) 19 전주시청

인천시청 30 (16-10 14-16) 26 조폐공사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總譜 300手 完

白(6段) 張秀英(2勝)
黑(7段) 河燦錫(2敗)
(각5시간·덤5집반)
【白2집반勝】

張6段도 先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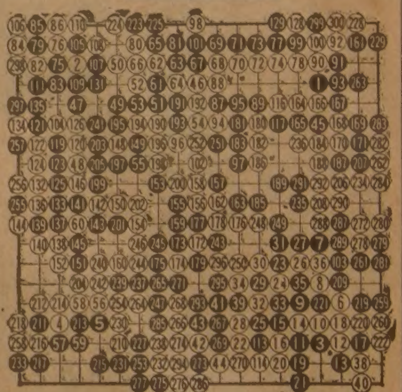
張6단은 이로써 2승, 河燦錫4단과 나란히 선두에 서고 河7단은 반대로 연2패, 시드組에서 떨어질 위험이 높아졌다。그러나 아직은 초반이므로 승자나 패자나 殘餘4국에 다같이 최선을 다할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이 바둑은 한말로해서 근자 보기드문 대격전과 대변화의 연속譜이다。승부를 따지기전에 종국시 판에 널려진 300개의 돌들이 제각기 할 구실을 다하고서도 힘에 겨웁듯이 꿈틀거리는 느낌이라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같다.

당초 우하귀에서 白8에 대한 黑9로 임하여 오랜만에 보는 정석이 나타났다。이같은대형정석은 수수가 긴만큼 단조로운 국면이 전개될것 같았는데 그 예상이보기좋게 빗나간것이다。다만 이정석후 黑45가의문이어서 白46을 선착당하여 黑이 어려운 포석인데다 좌변에서 白60마저 허락한것이 불찰인가 싶다。

좌상과 상변일대의 접전에서 白122가 과하여 黑147까지 역전되었으나 黑은 149로 190할 곳을 놓쳤고 白대마공격때도 黑179는 185에 뻗을 시기였다。白은 180및 190이하200까지 대마를 기적적으로 살리고 黑도205까지일단 죽었던대마를 기적적으로 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가 미세하니 하나의 名局이라 할만하다。37…29、115、127…105、130…2、147…60、226…105。【一九】



4월 효창운동장에 人造잔디 깐다

崔淳永축구협회회장 유임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축구협회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열고 崔淳永회장을 유임시키는한편 새로운 집행부 인선문제를 崔회장에 일임했다.

총회서 확정된 83년도예산은 34억6천8백여만원으로 지난해 24억5천2백여만원보다 10억1천5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崔회장은 이날『축구인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한국축구를 밀고나가자』고말했다.

또 崔회장은 오는 4월효창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기로 서울시와 지난13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축구중흥을위해 시도협회 지원금을 월1백만원으로 증액하고 코리안 리그 운영방법을개선, 지방연고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의 초중고교등 지역단위 대항전을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새집행부와 국가대표팀은 내주에 구성될것으로 알려졌다.

球場관리 각球團에

한국野球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총회를 열어 83년시즌 프로야구경기운영및 구장관리를 각 구단이 전담토록하고 수입금은 배분율을 정해 반독립·반공동채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운영이 각 구단으로이관됨에 따라 KBO 새해예산은 6억2천1백96만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억원줄었다.

KBO는 83년 경기수를 3백게임으로 확정, 유료관중목표를 2백20만명, 입장수입목표를 36억원으로 정하고釜山·大邱·光州·仁川구장 관중석을 2만석으로, 大田구장을 1만5천석으로 확장해주도록 내무부와 해당시에 건의키로했다.

533-2361

매　매

성업중인 일본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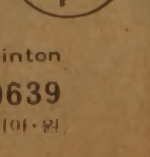
- 급한 사정으로 바겐가격으로 팜.
- 좋은 위치(Yonge상에 있음)
- 주류허가 있음(LLBO)
- 44석의 좌석·큰 파킹장
- 문의처 : 221-1621(4시이후) 826-7676(6시이후) Mr. or Mrs. Morii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재동)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제(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928-3335(B), 532-9581(R)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가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북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외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회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저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토·일요일은 자유. 월: $400.-
전화 : 499-5996 (저녁 6시이후) Mrs. 김

일본요리사 / 한국요리사 구함.
전화 : 923-3060 GRANADA 음식점

출퇴근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266-6355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도넛숍 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출퇴근하시며 베이비씨터 하실 분.
전화: 665-9585 Mr. Lee(오후5시30분 이후)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533-2361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등촐토요학교. ◉757-7828(김지헌)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Van트럭 82년도 GMC 회색
3,000Km-실내장식 완비
전화: 749-9687 Mr. 조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Oakville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아스킹: $60,000(스탁 포함)
전화: 844-2950 로레인 또는 버니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2만+스탁. 렌트: 월 $625(가게와 2층살림집)
1054 Gerrard St. E. 전화 : 469-3708

당구장 매매함.
비데오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 531-9216 (오후5시-밤12시) GEO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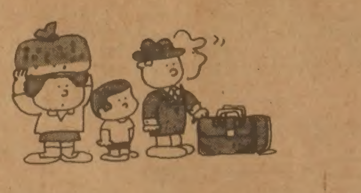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스킹: 3만6천+스탁.
전화: 820-7259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아이스크림 캐비넷 파실분 연락 바랍니다.
8Ft 나 6Ft. 쓰던것.
전화: 920-0539

아파트를 구하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3베드룸이나 1베드룸 타운하우스 렌트
즉시 입주가능.
전화: 532-9581(저녁7시 이후)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사무실 렌트.
연락처: 535-6004, 535-8801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Bed Rm. 렌트(여성에 한함)
월: $130. 위치: Lawrence & Midland
전화: 759-3794 Mrs. 리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태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멧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베이론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베이크셔×토약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